朝鮮日報
夕刊 八日(金)
本紙朝夕刊十二面

平和政策을基調로 誤解一掃에努力

蘇中兩國關係에重點 外交方針演說의主旨

【東京電話同盟】有田外交政策에 對하야는 內外各方面에잇서서 여러가지로 論議되여잇는此際 外務省은 二十一日 議會再開劈頭에行할 外交方針演說의 內容에對하야 特히愼重한 態度로서 新春以來連日 首腦部會議를 열고 잇섯는데 內外諸情勢에 鑑하야 日中日蘇關係에 關하야는 蘇中兩國의 宣傳網에 阻害되여 各國에相當한 誤解가잇고 日本의 對中政策이 侵略的性質을 가진것처럼 傳하야 國民의 發展을 阻害할 憂慮가잇스므로 今回外交方針演說에 잇서서는 蘇中兩國關係에 重點을 두고 日本外交政策이 東亞安定及世界平和의 建設에 寄與하랴는 以外엔 他意가업다는 所以를 闡明할 方針이라한다 對中對蘇政策은 左의主旨를 根本으로하게되엿다

有田外相

一、對中政策 最近世界的으로 國家主義的傾向이잇슴에 鑑하야 日本國民의 生存權確保의 局面을 東亞에 求하지아니하면 아니됨으로 日本으로서는 東亞의 安定勢力이란 立場으로부터 極力으로 東亞의 安定確立에 邁進할 意向이다 이로써 日本은 國民政府나 地方政權을 不問하고 共存共榮의 大眼目에 基하야 提携協力하야 東亞의 安定을 圖謀할 方針인데 이를達成함에는 爲先兩國의 國交調整을 圖謀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리고 昨夏以來 頻發한 排日事件은 日中의 國交調整을 阻害하는바 적지아니함으로 日本側으로서는 拔本塞源의 方策으로서 排日의 徹底的取締를 求하는 一方國交調整을 爲하야 諸懸案解決을 求하고 잇섯든것이다 그런데 西安事變後의 妥協工作에 依하야 今後 政府가 如何한 組織을 만들어 如何한 政策을 取할가는 日本의 가장 重大關心을 가지는바이다 또北中은 滿洲國의 接壤地域으로서 特殊地帶가 되여잇스므로 日本으로서는 文化及經濟의 各方面에잇서서 特히 積極的으로 提携를圖할 方針이다

一、日蘇關係 蘇聯側은 日獨防共協定이 蘇聯邦을 假想敵으로한 軍事同盟과거리 誤解하고 日蘇關係에 無用한 刺戟을與하고잇는데 同協定은 單純히 콤인테른을 目標로한것에 不過하야 何等 蘇聯邦을 對象으로 한것이 아니므로 時日의 經過에따라 蘇聯側도 漸次 그眞意를 諒解할것으로 確信한다 日本側은 東亞安定을 圖謀하기 爲하야 어데까지던지 萬邦協和의 根本精神에 基하야 蘇聯邦과 親善確立을 期하고 漁業問題、國境問題 其他諸懸案解決에 依하야 漸次 兩國間의 正常化를 圖謀할方針이다

政府의對議會策

八日閣議에서大綱決定

【東京電話同盟】再開議會劈頭부터 外交、增稅、電力、義務敎育延長의 諸問題를 圍繞코 深刻한 論戰紛糾가 豫想되므로 政府도 對議會策으로 八日午後一時半부터開催된 初閣議席上 廣田首相을中心으로 前田 島田 額母木 小川의 各黨出身閣僚及永田拓相等으로부터 各各 貴衆兩院各派의 情勢를綜合 意見交換을遂하고 政府로서는 豫算第一主義를目標로 議會無事經過를期하야 如左한 態度로 善處邁進키로 意見이 一致하엿다 具體的 對議會策에 關하야는 今後의貴衆兩院各派의動向을 注目한後 來十五日의閣議에서 更히協議決定하기로되엿다

一、再開劈頭의 首相、外相、藏相의演說은 從來式施政方針說明에끄치지안코 率直且具體的으로 庶政一新의國策方針을宣明할것

一、外交問題에關하야는 特히積極的으로 詳細한說明을 行하야 國民뿐아니라 全世界의疑惑을一掃코 議會의質問에 對하야도 秘密會의方法을 避하고 可及的公開席上에서 明快한答辯을 與할것

그리고再開前의 外交懇談會開催는 可及的此를拒否할것

一、議會의論議에 對하야도從來와如히 敬遠的態度를取치안코 끗까지 議會質問權을 尊重하야積極且懇切한答辯으로應酬、議會의 機能發揮에 努力할것

政府政黨의攻防陣

【東京電話同盟】第七十再開議會도 旬日後에 迫到되엿슴으로 政府、政黨모다 本格的對議會策의 樹立에 着手하엿는데 政府는外交問題、稅制、電力國家管理等 議會에서 重大化를 豫想되는問題가 山積하여잇슴에 鑑하야 政黨側의 諒解를求하고 議會의圓滿通過를 圖謀하고자하야 藤沼書記官長으로 하야금 八日午前九時二十分、巢鴨의 私邸에 政友會의 安藤幹事長을 訪問시켜 外交懇談會를 비롯하야 各種問題에 關한 政府의 方針을 說明하고 諒解를 求하며 또民政黨의 永井幹事長을 訪問시켜同樣懇談諒解를 求하엿다 一方午後一時半부터 政府는 初閣議를열고 對議會策을 協議、豫算案을 비롯하야 重要議案의 圓滿成立을期하도록 防禦陣을 鞏固히하엿다

二重橋前廣場에서 陸軍始觀兵式

空軍新銳七十機參加

【東京電話同盟】昭和十二年度軍國新春을裝飾하는陸軍始觀兵式은 八日午前惶悚하압게도 大元帥陛下의 親閱下에 二重橋前廣場에서 極히壯嚴히 擧行되엿는데 參加皇軍一萬一千 空軍新銳機七十은 十七年만의 宮城前觀兵式에 士氣가衝天하야 錦旗燦然히 빗나는御前에 堂堂히 近代皇軍의威容을 遺憾업시 發揮하엿다 이未曾有의 盛觀을拜觀하랴고 民衆은 前夜來式場附近에參集하야 午前九時半에는 벌서부러定員一萬五千名이되는 楠公銅像傍과 元帝室林野局의二個所의陪覽席은 갓득차고 場外에도 數萬의市民이 群集하엿다 觀兵式에 參加한 近衛第十四在京派遣部隊河村部隊留守隊等의 精銳는 諸兵指揮官岩越恒一中將指揮下에午前九時半에는 式場을周邊에肅然히整列하야 閑院參謀總長以下外國大公使武官 陸軍諸學校偕行社員 在鄕軍人將校家族等 特別拜觀者八千名으로 儀容을 正히하야 陛下의御着을기달리엇다 午前十時 大元帥陛下께압서는 陸軍様式御正裝으로 大勳位菊花章頸飾功一級金鵄勳章本綬以下數多의勳章을 御佩用、金色勝勝한 御威容으로 惶悚하압게도 御愛馬에올르시사 宮城御車寄를發御하압시엇다

陛下께압서는『君代』의喇叭와 曉、十時三 式場御着岩越諸兵指揮官의 奏上을바드시사 即時 御閱兵을開始하압시사 坂下門外의近步一旅團을비롯하야 步、工兵、騎兵、野砲兵、野戰重砲、騎兵、輜重各隊는 一齊히 捧銃捧刀、喇叭奏하는 君代의喇叭소리壯重하게은대 御閱兵의儀는 終了하압시사 須臾에 陛下께압서는 二重橋前玉座에 凜然히나아시 岩越中將의 指揮刀一閃、部隊는 玉座前을 北으로부터 南으로軍樂隊의 吹奏裏의『觀兵式 行進曲』에 마추워 堂堂히 分列行進을 展開、列中에는 近衛中隊長으로 계신 北白川宮永久王殿下 八小隊長으로계신 李鍝公兩殿下의 御勇姿도 拜觀되엿다 午前十時四十分頃 萬歲擴聲上空으로부터 轟轟한 爆音中에 勇敢스럽게 航空兵團長德川好敏中將坐乘의 偵察機를 先頭로 白石大佐의 第一飛行隊井下少將의第二 柴田大佐의 第三長沼少將의 第四 各飛行隊新銳機七十機가 銀翼을 번리고 高度三百時速百六十粁의 整然한編隊陣으로 飛來大空을 抑壓하야 空中에 大分列式을 擧行하고 南方芝公園方面에 飛去하엿다 이리하야空陸相呼하는陸軍始觀兵式은 終了하고 陛下께압서는 君代奏樂 諸員奉送裡에 再次御乘馬로 宮城에 還御하압시엇다

政黨側質問에 陸軍은率直히應答

또民政黨에서는 同日午前十一時丸之內常盤에 初幹部會를 열고 再開議會에 臨함에 對하야 貴衆[illegible]하야 [illegible] 政友會도 同日午前十一時부터 芝三緣亭에 總務會를열고 同樣外交問題取扱其他를 協議하얏다 이리하야 [illegible]開되여 政府政黨의 攻防戰은마침내 本格化하여왓다

【東京電話同盟】憲政擁護、信用回復을目標로한 政黨은 今議會에非常한 意氣로써 軍部官僚에 內薄할것으로 豫想됨으로 陸軍에서도 充分한準備와 覺悟下에議會에 臨하게되엿는데 軍部政黨의 對立的情勢는 이미昨年의議院制度調査會委員과의 懇談會에서 그前哨戰이 開始되여 兩者間에는 아직 融解되지아니하야 感情의間隔이잇는바 再開議會에잇서서 이問題는 繼續하야『軍部의 議會政治에對한 眞意如何?』라는 質問의 形式으로 展開될터임으로 陸軍으로서도 이問題가 未久에 白日下에 全面的으로 討議가行하게될것이라고 豫想하고 잇는데 政黨側이 眞摯한 態度로서 積極的으로 나온다면 이미 確定되여잇는 答辯方針에 基하야 極히 率直히質疑에 應答하야 疑念의 氷解에努力할터이다 即陸軍의議會制度에對한 眞意는 學者間議或은 議會席上에서 寺內陸相으로부터 說明한바와가티

一、獨特한立憲政治의發達

一、議會의權限에恪循하야 그適正한運用

一、民意의暢達 國民的輿論의國政에의反映

을 指導原理로하고 또具體的으로는 憲政常道論의絶對排擊、選擧制度의徹底的改正을 要望하는것으로 特히二大政黨의 政權의 周期的爭奪戰이란 憲政常道論은 國體明徵의 政治機構의 徹底的 具現을 理想으로하는 陸軍으로서는 到底히 贊同할수업다는 所以를 闡明하고 堂堂히 議會에 信念을 披瀝할 態度를 堅持하고잇다 따라서 政黨側이 政務官의 補充問題等의 末梢問題로부터 軍部의 議會政治에對한 眞意等의原則論을 가지고 軍部攻擊의 烽火를 올리는境遇에는 陸軍은妥協的態度를 버리고 堂堂한立場을 取하야 [illegible] 이와抗爭하는 態度를 取할것임으로 軍部對政黨의對立은 今議會에잇서서 가장 激烈한 論戰을 展開할것으로 그推移가 注目되여잇다

四相會議 十三、四日頃開催

【東京電話同盟】中央行政機構의改革에 關하야는廣田內閣의四相會議에서 內閣機務院設置及人事局設置의大綱을 決定하고 再開議會까지 大體結末을 지으려하엿스나 秋田新相이八日부터十一日까지 秋田新潟方面에視察에 出張하엿스므로 歸京을待하야十三四日頃 四相會議를開催한後 右內閣機務院設置 內閣人事局의機構에 關하야 最終的決定을하고 此에要하는經費는 十二年度追加豫算으로서 今議會에 提出手續을 取하는 同時에 右에伴한內閣官制改正의 樞密院諮詢을仰하야 明年度부터 實施하기로되엿다

警視總監更迭

後任早川廣島縣知事

【東京電話同盟】政府는八日初閣議에서如左히 警視總監의更迭을決定하엿다

依願免本官 警視總監 石田馨

任警視總監(一等) 廣島縣知事 早川三郞

任廣島縣知事(一等) 三重縣知事 富田愛次郞

任三重縣知事(二等) 茨城縣知事 安藤狂四郞

任茨城縣知事(二等) 東京府書記官(總務部長) 林信夫

西部國境防備次 軍事道路를開設

蘇聯의三七年計畫

【莫斯科六日發同盟】蘇聯政府는西部國境防備擴充의 見地로부터首部莫斯科를 基點으로 西部國境에이르는 重要軍事道路를 開設하기로 決定하엿다한다 右道路構築에는 政治犯人을 使用하야 一九三七年末까지에 完成할豫定인데 完成하는날에는 自動車隊數隊가 堂堂히 倂行하야 進軍할수잇게될模樣이라한다

自動車道路의 一半二百五十粁는이미完成하엿는데 또라트비아의라우가브림스及 波蘭國境에支線이開設될 豫定이라傳한다

惡天候로首都附近 戰鬪停止狀態

防衛司令部의發表

【마드리드六日發同盟】마드리드防衛司令部는 六日正午戰況에關하야 左와如히 發表하엿다

마드리드戰線一帶는 惡天候로五日은 戰鬪停止의狀態에陷入하엿다 但東北地方에잇서서는 政府軍砲兵隊는 叛軍根據地에 砲擊을加하는一方 政府軍은과데라마 城에向하야 着着進擊을 開始하야 多數의 軍需品을鹵獲하엿다

叛軍空陸相呼應 首都攻擊開始

【마드리드六日發同盟】西班牙叛軍은 數日來 再次 果敢한 首都攻擊을 開始하엿는데 六日午後三時부터 約二時間에 亘하야 野砲의 砲列을 벌리고 猛烈한 攻擊을 加하엿기때문에 中央電話局及 附近建物은 莫大한 損害를바덧다 地上部隊의 砲擊에 呼應하야 重爆擊機十四臺가 首都上空에 飛來하야 西郊비라·베르데 方面에爆彈을 投下하얏다

義勇軍派遣禁止案 獨伊原則的承認

但、効果如何는疑問

【伯林七日發同盟】獨逸外相노이라ー트男은 七日午後六時十五分伯林駐箚英國大使 피립氏 及佛國大使폰세氏에 對하야 外務省에 來訪을 求하야 西班牙에對한 義勇軍派遣禁止案의 回答을 手交하엿는데 그要旨는 如左하다

獨逸政府는 目下倫敦不干涉委員會가 西班牙問題를 處理中임에不拘하고 英佛兩國政府가 委員會를度外視하고 直接委員會關係國政府에 提案한것을遺憾할 바게업다 委員會의 方法을 不適當하다하면 그事業을 中止하는것이 可하다 獨逸政府는 當初부터 西班牙에對한 義勇軍派遣禁止를 要求하엿슴에 不拘하고 英佛兩國政府는 此에 反對하엿든데이 新提議에 對하야는 原則的으로 이를 受諾하기에 吝치안는바 但獨逸政府는 不干涉의主旨를 貫徹하기 爲하야다음條件을 提出한다

一、他關係國政府도同樣의態度를取할것

一、內亂에對한間接干涉問題를即時解決할것

一、不干涉監視는 無條件實効를期할것

一、最後로 西班牙에잇는 外國人戰鬪員及政治的煽動者宣傳者等을 一掃하야 本國에送還시킬것을 要求함

【羅馬八日發同盟】伊太利外相챠노伯은 七日午後六時頃 英國大使도라몬드氏及 佛國代理大使브롬메르氏를 기지宮에 招致하고 義勇軍禁止案에 對한 伊太利政府의 回答을 手交하얏다 回答全文은 七日夜公表되엿는데 타이프라이터로바은 四頁에亘한것이다 右回答에잇서서 伊太利政府는 獨逸政府와 完全히 共同戰線을펼리고 原則的으로 義勇軍禁止案에 同意를表하고잇스나 佛蘇兩國政府의『間接的』援助를 非難하고 事實上 禁止案을 流産하에할열라는 作戰을 取하고잇는데 回答要旨는如左하다

內亂不擴大의目的으로서 外國義勇軍의 西班牙入國禁止에對하야 英佛兩國政府로부터 照會를바덧다 伊太利政府로서는 義勇軍의禁止에 反對하는것은 아니다 本問題에對하야는 不干涉委員會의宣言을 檢討할必要가잇다 伊太利政府는 一九三六年八月及九月에 義勇軍禁止를 內亂不干涉案의 本質的項目으로서 採擇치아니하면아니된다고 再三主張하엿섯는데 當時英佛兩國政府는右提案을拒否하엿다 伊太利政府가 當初禁止案을 提案한以來 外國義勇軍이 大擧하야 西班牙本土에上陸하엿는데 萬若今日 義勇軍을 禁止한다면 事實上革命政權에對하야 西班牙政府에 顯著히 有利한結果가될것이다 伊太利政府는 大局的見地로부터 구태여 特別協定에依하야 義勇軍問題를 處理함에는 反對하지아니하나 右協定은 반듯이 全般的性質을띄여서 內政及 財政的援助 不干涉에對한 一般諸問題를 一括로 處理할것을 要求한다 또西班牙領土로부터 西班牙人이아닌 分子를 全部撤收할것을 提案한다

人事・集會

▲李敦化氏(天道敎顧問)七日午前九時咸南高原邑內新井里邸第에서 遭內艱

▲李基鍵氏(鮮興商工株式會社取締役社長)新任人事次來社

▲金仁炫氏(同專務取締役)同上

西海岸封鎖案은 英、反對로流産?

日米及中南米諸國이不參加限 成功할可望업다고

【倫敦七日發同盟】獨伊兩國政府가義勇軍派遣禁止案을 拒否하는境遇에 西班牙海岸封鎖를 斷行하라는意見이 有力하게되엿는데、英國政府는 이에反對할 意向이라解된다 右에關하야 外務省側에서는七日左와如히言明하얏다

一、西班牙海岸封鎖案은 日本米國及中南米各國이 參加치안는限英國政府로서는 原則的으로反對한다

西班牙海岸封鎖案은 昨週不干涉委員會에서도 英國代表는 反對意見을表明한 事實에 鑑하야同案은 多分히 流産에 終了될것으로 推測된다 따라서 目下不干涉專門委員會에서 作成中인義勇軍監視案은 極히 徹底的으로 大要左와如한 內容에 基한것이라고 解釋된다

一、西班牙各港에 監視委員會를設置함

一、監視巡邏艇隊는 西班牙各港에 入하는 船舶의 行動에 關하야 疑點이 잇는 境遇에는 逐一 右委員會에 報告함

但 監視委員會는 船舶의 停船檢査를 行치아니함

蔣介石張學良 妥協條件六個條

西安側機關新聞報道

【上海七日發同盟】蔣介石氏의釋放을 中心으로한西安南京間의妥協條件에 對하야 國民政府側에서는 緘口不語하고 잇으나 西安側은南京側이 張學良 楊虎城兩氏의要求를 全幅的으로 容認하고 特히 蔣介石氏는 十二月二十五日 西安을 떠남에 當하야 飛行場에서 楊虎城氏에 對하야『妥協條件에對하야는 余는 實行을誓約한다 實行하지아니하면 余는國民政府의領袖가 될資格이업다』고까지말하고 다음가튼 妥協條件六個條를 發表하고 또 이를西安側 機關新聞에도 揭載시켯다

一、隴海線潼關西方에 들어간中央軍은 二十五日부터 一齊히後退하야 潼關以東에 撤退한다 二十五日以後에 萬若內戰이이러나면 蔣介石氏 自身의責任이다

二、內戰을 停止시키고 國力을集中시켜 一致하야 外敵에對抗함

三、國民政府를 改組하야 各方面의 人材를 集中하고 抗日의主張을 容認함

四、外交政策을 變更하야 中國民族解放에 同情하는 一切國家와協力함

五、上海에서 逮捕된 救國將領全部를 即時釋放함

六、西北省의 軍權政權을 全部張學良、楊虎城兩氏의 責任에委任함

또國民政府는 六日附로서 西北剿共總司令部를 撤廢하고 共産軍討伐中止를 正式으로 發表하는同時에 十二月十四日 張學良氏等이 擧兵直後 西安에 設置한 軍事委員會를 正式的機關으로 追認하엿다는데 此는 西安側發表의妥協條件의眞實性을 말하는것으로서 極히注目되고잇다

八面鋒

◇外國爲替管理를 强化식히라는大藏省令 一月八日付로施行

◇通貨의補强工作보다도 世界貿易戰에對한武裝이아닐가。

◇汪精衛氏、歸國後에는 大總統에推戴되리라고。

◇政府主席대신에 大總統이라는官職名이생긴다고 中華民國이달러질理는萬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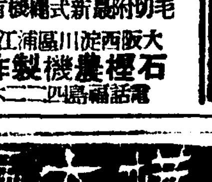
◇國內統一과 民生安堵를爲하야 眞正한指導者가되기前에는 누구나釣名客이될뿐。

◇四萬萬中國人을 爲하여서나 東洋大局으로보아서나 中華의安定은 焦眉의急。

最新型寢台 カタログ進呈 工場より直接需要家へ 西田寢臺製作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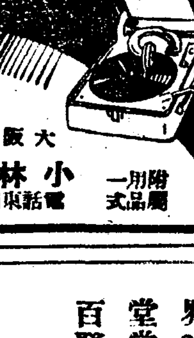
ワイシャツ カラー 謹賀新年 大阪市東區 和田シヤツ製造所

石桓農機製作所 大阪西淀川區



昭和十一年式 大發明特許 カガリ無シ 軍手製造機械 軍手の製造 本社 大阪市阿倍野 京城支店

蓄音器 レコード 各社 卸專門 大阪市東區淸水谷西町 小林蓄音器製作所 附屬品一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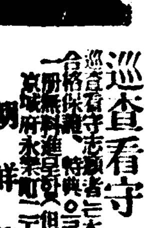
全國販賣員募集 月收百圓 山野商店

食料玩具 小物玩具 卸問屋 大阪市東區淸水谷西之町 筑紫屋商店

ナイト印 ワイシャツ カラー 柳田シャツ製造所

凍傷にアスター

巡査看守 朝鮮警務學會



外科 X光線 醫學博士 鄭求忠 (入院室完備) 京城鍾路三丁目十六 電話光化門六八五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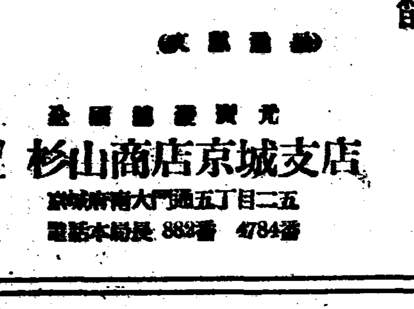
老少를勿論하시고陽氣업서서 恨歎하시는분이여! 貴下를爲하야 補精腎氣强壯에 神奇神秘한天惠的靈効를가진 樺太廳官營捕獲眞品海狗腎이 到着하얏슴니다

樺太廳官營 海狗腎 新品到着 說明書는 本內容을 보시는분은 請求하시면無料進呈함

明治四十四年 日、英、米、露四個國의條約에基한全世界에唯一한元素！ 堂堂한實彈的眞品！ 百發百中은이를두고하는말

朝鮮釜山府草梁町 發賣元 合資會社 大洋貿易社 電話長一一八二番 振替釜山七九二二番

クボタ 石油 輕油 發動機 農林省認定品 商工省指定優良國産品



謝恩特賣 蓄音器景品附 自九月一日 至十二月末日 杉山商店京城支店

ワカゲ 東日 大每 國際ニュース 新婚うらおもて 放浪兒 大人五〇 學生小人三〇

第一劇場 電話光化門一七五五番 大學の若旦那 日本晴れ 風雲兒 뿌리운怪投手

團成社 虎鮫島脫獄 伊豆舞艶錄

關稅改正案通過되면 舶來品一齊昂騰

씽거ㅡ미신一臺에關稅만十餘圓引上

朝鮮家庭도影響多大

근년 농촌경기가 다소회복되비치·보인까닭이지 조선가정에서 재봉틀(씽가·미신)의 수요가 늘어 미국방면에서 들어오는재봉틀과 그부속품들의 수입액은 년년 늘어왓는데 이번제개의회(帝國議會)에 제출할 관세개정안(關稅改正案)은 의심업시 통과를 보게될것으로 일반외국품이 올으게될것이 결정적이중 전긔재봉틀값도 또오르게 된모양이다 즉 그동안 재봉틀의 수입액으로보면 소화구년이 일백이십여만원이든것이 소화십년에는 이백 륙십일만원이엇고 다시 작년은 이백구십삼만팔천원에 달하엿나 그런데 관세개정안에의하면 종래 재봉틀의 밥엇시 매백근(斤)에 대하야 이십이원 이든것이 륙십이원오십전으로 약사십원이 올으게되여 재봉틀 한대의 중량이 이십오근임으로 한대에관세가 십원이고 그외의 부분품이며 부속품도 이향으로이나관세가 올으게 될터임으로 결국은 한대에보통 십원이상 오십원까지는 올으게되지안흘가고 관측된다 이때문에 재봉틀값시 빗싸지며 그수입이 약삼분의 일감하게되리라고 보고잇스나 또한편으로는재봉틀회사에서 어떤책략을 써서 강을 나리던지는 알수업다 하여간 종래 미국제의 『씽가』 미신은 볼부터 빗싸게 될터이고 그반면에 일본내지 제품의 이입이 늘을모양이다

다고한다 계속여죄를 취조중이다

端緒를못엇고 現場을再次檢證

顔面의亂刺가注目끄는手法

蘇島殺人犯人杳然

목섬 일본내지인로파살인사건의 그후는 여전히 오리무중에 헤매이고잇다 칠일 오후령시경 동대문서 편강(片岡)서장과 평림(平林)사법주임은 재차 현장검증을 떠낫다 과연 이 재차의 현장검증이 여하한 유력한 수사단서를 어들는지는 의문이다 만일 무슨 유력한 단서를 어더서 무난히 범인을 체포케 된다면 범죄수사상에 새로운 화제를 제공할것이라고 한다 웨그러나하면 범인은 예리한 단도로 피해자 용전(涌田)의 얼굴을 빈틈업시 보기에도 소름이 돗치게 조각조각 찔러서 죽인후 또 다시 단장가튼 곤봉으로 그의 시체를 두다렷다는것이라든가 그외 여러가지점으로 보아서 새로운 범죄수단을 쓴사건이니만큼 그수사여하가관계자에게 대단 주목을끌고잇다 그리고 일편 그서에인지한중국인 왕모(王某)의 취조는 계속진행중이나 아직 이러타할 아무단서도 어치못한모양이다 이외 피해자 집에서 고용사리하든 연모(延某)도 인치하야 취조중이다

今朝, 蒼空에異變 白虹이太陽貫通

氣象學上으론MOCK·SUN 不完全한肉眼의錯覺

【仁川支局電話】 팔일오전열한시에 경성인천지방에서는 태양에 근래에 보기드문 이변을 이르켯나 즉 흰빛의 무지개가 태양을둘르 서서 태양이 둘도되엿다가 셋도되엿다가하야 우리인간들의눈을 황홀케하엿다 이에대하야 인천관측소의 말을드르면

태양을향하야 엷븐구름이 가차웟다가 엷어졋다가함을 따라 광선작용(光線作用)으로 광채(光彩)이생겨서 우리인간의눈으로볼때에 태양이 둘로 혹은셋으로 보이게된것인데 기상학자(氣象學者)는 이것을 『목·선』(MOCK·SUN)즉 거짓태양이라고 부른다고한다 옛날의 전설에 『흰무지개가 태양을둘르면 나라에 조치못할징조라고 하얏이잇스나 팔일오전에 태양이 둘로 혹은 셋으로 보인것은 한등 태양자체에는이상이 업는것임으로 아무미신할꺼리가 못되는것이라한다 그러고 이와가튼 광경은 가끔잇는일이나 우리인간의 육안(肉眼)으로는 별로히 보기드문일이라한다

모든게光線作用

天文學上흔히볼수잇는現象

京城測候所員談 별항과가티 오늘아침 열한시경에 태양(太陽)에 이변이잇섯다 이에대하야 경성측후소원의말을 드르면 다음과갓다

노푼곳에잇는 구름속에잇는어름(氷)의결정이 태양광선(太陽光線)이 비칠때에 광학적현상(光學的現象)이 여러가지로 나타나게되는다 이는 일훈(日暈)이라고하는데 일년동안에여러차례 볼수업는현상입니다

그리고 태양(太陽)의한복판으로 나간것으로보이는무지개(虹)가 둘이나잇섯는데 이는 환일(幻日)이라고 부르는현상이나 보통 사람의 눈에는 매우이상한현상가티 보혀슬것이나천문학상으로는 흔히 보는현상으로 그다지 괴상할것은업는것이다

自轉車專門賊

장성군장성면성산리(長城郡長城面聖山里)출생 현재 시내가회정(嘉會町)일백팔십사번지 전과삼범 김봉서(金鳳瑞)(二六)은 절도

民有林火田民 整理에遂着手

─豫算十萬圓에容認─

국유림을 근거로삼고잇는 화전민은 북조선 개척사업에따라서순차로 정착정리가 되고잇는중이나 이밖게 민유림에잇는화전민은 실로사십일만이천청보집구만륙천호 구십오만인의 인수에달한 화전민에게대한 대책은 아직아모 계획도 서지못하고산림을 태워서 경작을하고 잇슴으로 총독부농림국에서는 민유화전의 대책을 세우기로 되여 명년도예산으로 보호직원설치비를요구중 예산집만원이 용인되엿슴으로 드디여 의회의결정을 기다려 민유화전민의 보호직원 백사십인을 증원하고 새로경작할라는자의처지를 하게되엿다 그리하야 농림국에서는 위선명년도에 백사십명의 직원을느려 소화십삼년도에는 이것을배가하야 경작저지를 적극적으로 할터로 여기에보호를가하야 정착의방침을 취할터이라한다

今八日遂送局

前警官看守瀆職事件

詐欺收賄等罪目으로

루보=부내 룡산서사법계에서 취조중에잇든 전도화정(桃花町) 사은학원(四恩學院)원장으로 룡산서순사를한 빈전룡웅(濱田龍雄)(三)외 그의삼촌 빈전모(濱田某)、전경성형무소 간수 리모(李某)강촌덕차랑(岡村德次郎)등에관한 독직사건은 그동안 근한달동안의 취조를 마치고 팔일오전에 일건서류와함께 사긔증수회、공문서위조죄등의 긴죄명으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 넘겻다。

그들의 범죄내용은 전긔 빈전룡웅이가 사은학원 원장으로 잇는동안 즉 소화구년부터 동십일년일월까지 사이에 소년절도들을 리용해서 소위 그학원경비를 짜내인다 칭하고각처로부터 도적질해온 물건들을 헐한값스로 사드려가지고 그것을 처분하여 막대한리익을본외에 당시 경성형무소간수로잇든 전긔 강촌덕차랑등 간수들에게 뢰물을 먹이고 마분지를 부당한값스로그 형무소에 입찰식키여 다시적지안흔 리익을 취햇다는것으로 그금액은 약륙천원가량이라한다

釜山에碇泊中 昭和丸에出火

(부산)칠일 오전열한시오십오분경 부산항내에잇는 대창교급수회사(大倉橋給水會社)로부터 약오백메돌의해상에 정박중이든조선우선회사소유 화물선 제삼소화환(昭和丸)(五三二噸)의 뱃간에서 불이나서 선체와 그곳에 적재중인 면화(棉花) 삼백칠십사근(斤)을 태워버리고 동오후령시에 진화하엿는데 손해는약이만일백오십원이요 원인은인부들의 버린담배꽁지나홋은『아세치렌까스』로부터 숨에불이당긴듯하다하며 소화한손해는 십팔만원의보험에 드러잇다한다

凍死·縊死兩件

◇……身元은모다不明

칠일은경서관내에 발생한 동사(凍死) 일사(縊死)두건ㅡ사고무친한그들은 새봄이왓것만 어두운 저세상으로 떠나고말엇다

▲칠일오전七、八시쯤에 병목정(並木町)일백팔십이번지아페 성명소차 알수업는 걸인모습의 조선인남자한명이 얼어죽엇는데 년령은 오십세가량되여 보인다고한나

▲칠일오후열한시쯤에 대화정(大和町)삼정목륙십삼번지뒷산에 추정년령오십상세가량되는 조선인남자가 삼바른목을매고 자살한것이 발견되엿다 히중에는 동전십이전이 들어잇섯스며 유서가튼것도업다 방금 동서에서는 신원과자살원인을 조사중이라고한다

虎口에든내딸

찻도록해주시요!

글 한자 모르는 시골사람에 터러업는 계약으로 속이고 그의딸을 빼아슨자가잇다

시내금정(錦町)문병오 次郞(假名)는 지금 부터 십삼년전모옥주(牟玉周)라는 시골사람의딸 채옥(彩玉)(七)이를 돈삼십원을주고 수양녀로 다려다가 길러서 근자에는 기생노릇을 식히여 때로는 지방에까지 출장영업을하고 잇는 형편이라는데 당초 수양녀로 다려올때 채옥이가 시집갈나이가되면 돌려준다는 이야기로 그의아버지는 응락 하엿슴으로 열일곱살먹은 자긔의딸을 금년에는 돌려달라고 재삼간청 하엿스나 문병오는 당초에 계약할 때에 돈삼십원으로 영구히 딸로준나고 계약서까지꾸미고 이제새삼스러히 그런당치도 안흔말을하는냐고 계약서라는조히 쪼각을 내여노코 도로혀 야단을칠으로 모옥주는 이억울한 사정을말하고 딸찻기위하야 팔일아침종로서에 설유원을드렷다고한나 그리하야 그서에서는 쌍방을호출하야 방금사실여부를조사중이다

空路難關을一掃

─黃海道瑞興又는新幕에─

觀測支所를新設

조선항공로의 난관으로 이르든 추풍령(秋風嶺)일대도 금년도의 관측지소설치에 따라 위험이해소되엿스나 추풍령과 함께 조선항로의 난관으로되여잇는 경성、평양중간의 황해도중부신막(新幕) 서흥(瑞興)부근은 기픈골작이가되고 이지방상에로 놓으가 끼일때는 땅바닥을 전년봄주업고 일족이대촌(大村)해군기 려러척이 이부근산허리에서충돌하야 드문참사를 보인적도잇섯다 그러나 이부근에는 관측에 대한아무시설도업섯슴으로 체신국에서는 십이년도에여계항공관측소를 새로세우기로하고소요경비 삼만사천원을계상하엿다고한다

이관측소는 서흥도근 신막에 신설할터로 설치후에는 경성평양두비행장의 중간에서 긴밀한 련락을 취하야 기상통보를 하는동시에 조선항공로의 만전을기약할터이라고한다

江界電氣料金減下

서선합동전긔회사(西鮮合同電氣會社)의 경영인 평북강계(江界)전긔는 금년일월일일부터 료금을 일할일분내지 일할칠분을 내려서 실시하기로 되엿다한다 서선 합동전긔회사에서는 작년년말에 강계전긔회사를매수하엿는데 이에 따라서 강게만포진(滿浦鎭)및 작년부터 전긔가 보급 되게된 벽동(碧潼) 초산(楚山) 위원(渭原)등의 벽지와 압록강 연안일대는 서선합동전긔회사 에서 전긔를 전부공급하기로 되엿스므로 이긔회에 그동제의 목적에 순응하야 전긔료금을 내리우게된것이라한다 내린료금은

▲정액등십촉(定額燈十燭)은 일원십오전에서 구십오전으로죽 일할칠분을 감하하고

▲종량등(從量燈)은 일『키로왓트』시(時)에 이십팔전으로부터 이십오전으로 죽일할일분을 감하하엿다

注文津郵便所에盜難

【注文津】주문진우편소에서는지난일일밤에 사무원 최선옥(崔善玉)(二)이가 현금백여원을 책상설합속에 너허두고 숙직실에서자고 그이튼날아침에 열어본즉현금백여원이 업서지고 말엇다는데 소관경찰관주재소에서는 백방으로 범인을수사중이라한다

奉天西北方서 土兵團과激戰

上等兵等四名이死傷

【奉天六日發同盟】 關東軍本部發表ㅡㅡ소전(小田)부대주력은 오일오전네시 지나서 봉천서북방 회원보(會元堡)부근에서 약이백명의 토병과 격전하야 좌등(佐藤)상등병은 전사하고 소림(小林)상등병등 세명은 부상하엿다

"哀乞强盜" (沙里院强盜事件續報)

"놀래지마십시오"

살기구차해서밤중에차저온게요

긔보=칠일오전령시십분에 황해도사리원읍 북리 (沙里院邑北里) 팔십사번지 대금업(貸金業) 박명섭(朴明燮)(呂七)씨의집에단도를가진 두명의 복면강도가 침입하야 현금삼백십사원을 강탈도주한 강도범인은 황해도경찰부에서 리근각경찰부로 총지하고방금 잘방으로 그범인들을수사하는중인데 범인들의 범행한 자세한 경과를 알아보면 이러하다

강도한명은 문밧게서 칼로써 창문을 두다리고 강도 한명은 부엌문쪽으로부터 박씨의 자는 방에 드러가서 가리네치가량되는칼을 내여노흐면서

놀래지마시오 우리는 사람을 죽이려온것은 아닙니다 우리는살기가 구차해서 선생님을 밤중에 차저온것입니다

고아주부드러운 음성으로 공손히말하엿다한다 그래서 박씨는 주머니에가젓든돈 십사원을 내여 주엇더니 그강도는 다시선생님은 만흔돈을 가젓슬터인데 한번더 기피생각하여 주십시요 하므로졈이나서 다시 손금고안에너허두엇든 도삼백원을 떠내여주엇더니 강도는 그것을바다가지고 박그로 나가버렷다한다

방에 드러왓든 강도는 조선옷을입고 회색캡을쓰고 흰수건으로 나츨가리웟는데 나이는 이십오륙세가량 되여보이며 말소리는 낫고 황해도사투리엿다한다 그러고 문밧게 섯든강도는 얼굴을 알수업섯다한다

北漢江利用의 發電은不許可

경성전긔회사에서는 대정십년구월중순과 대정십일년 구월십삼일 두차례로 경기도가평군청평리(加平郡淸平里)에잇는 북한강본류(北漢江本流)를 리용하야 일만칠천키로왓트의 전력을 내여쓰겟다고 체신국에 그인가신청을 하엿든바 신청한지 십륙년만에 체신국으로부터 그인가신청서를 반각하엿다한다

경성전긔회사에서는 현재 금강산전긔회사로부터 일만키로왓트의 전긔를바더쓰는 이외에는 전부 장진강수력전긔 (長津江水力電氣)로부터 소용되는 전긔를 바더쓰기로 되엿스므로 따로히 수력전긔를 이르킬 필요를 하지안키때문이라한다

警備電線을竊取

東萊郡沙上面甘田里에서

경비전선을 끈허간도ㅡ지난사일 오전네시로부터 다섯시까지사이에 경남동래군 사상면감전리(東萊郡沙上面甘田里)에잇는 경비전선 제일백십오호 기둥까지에 전선오십칠미(두가닥)과제일백십륙호 전주로부터 울산선(蔚山線)제일백륙호까지에 전선사십미돌두가닥)을 쓴허가지고 어떤 도적이 끈허가버렷다한다 범자취를 보아서 한명의 소위이닷하며 그근처 고물상의 범행이 아닌가 추측된다한다 부산경찰서에서는 그범인을 사방으로 찻는중이라한다

結婚詐欺로騙財

길림성신경시(吉林省新京市) 영락가(永樂街)七十八번지에 살며 잡화상을하는 김재원(金在元)(二七)은 이미 두번이나 상배를하고 홀몸으로 지나든중 작년구월경 의 소개로 부내 경여정(京如町)입정목에사는 박모(朴某)와 알게되여 박모가자긔의 질녀와결혼식혀준다는말에 속아 그동안약혼비용및기타비용등으로 약배원을 사취당하엿다 결혼날자에대하야 박모가차일피일 모피함에 의심을품고 사실을 조사하여 박모를 차저와서 약속리행을청하엿스나 박모의 질녀는서울에 잇지도안흠으로 그제야 속은줄알고 팔일본정서에 돈을찻게하여달라고호소하여왓다한다

孤獨한老翁自殺

淸凉里驛西쪽에서

칠일 오후열시 삼십분경 경성역을떠나 철원(鐵原)방면으로 가는 렬차가 청량리역 (淸凉里驛)서쪽 『후미끼리』(룡산역에서 십이키로잇백메돌의지점)에 다다랏슬때 어떤조선로인한분이 기차에뛰어드러서 무참히도 즉사하엿다고한다 소관동대문서에서 조사한결과 그는 시내전농정(典農町)一백오번지 리종선(李鍾善)(七?)이라는 로인으로 판명되엿다 이제 그가자살하게된 원인을들으면 그에게는 아들이두사람이나잇섯스나 한사람은 메해전에 어듸로 떠나간자로 행방불명이되고 한사람은 만주로돈버리간다고 떠난이래 소식조차업서 수족이부자유한 늘근몸을의지할데업시 고독한생활을게속하여오다가 근자에는 그의 족하집에서 겨우밥이나 어더먹는형편이든중 닥처오는 추위와울력세모는 의로움과 불행한처데살림하게 하야드디여 도라오는봄을 마지하기전에 그만죽엄의길을 차즌모양이라고한다

◇新築落成 無料診察 校洞入口
小兒科 內科 楊在植醫院
病房入院室完備 電光一七五二 ヒナコイ

運動競技

中等럭비ー覇者 培材高普

十日、京城에凱旋

全日本中等學校럭비選手權大會에 朝鮮代表로 參加하야 諸強을 모조리 擊破하고 中等럭비制覇의 宿望을 達成한 培材高普럭비一行廿四名은 部長林興、코ー취李有永兩氏引率下에 七日午後八時四十分에 大阪驛을 떠나 九日午前八時十五分 京城驛着列車로 凱旋할 豫定이든바 大阪在留同胞의 熱烈한 應援에 報答할兼 그곳의 祝勝會에 參席키 爲하야 하로는저서 十日에 大阪을 出發하야 十日에 凱旋할 豫定이라고한다

講武館冒寒練習

地方支部서도實施

市內堅志町에잇는 朝鮮講武館에서는 今年度柔道冒寒練習을 來十一日부터 三十一日까지 (約三週間)午前六時로 七時半까지同館柔道場에서 擧行할터인데 이번에는 同館支部인 安城講武館 楊平講武館에서도 同時日에 冒寒練習을 實施하기로 되엿다고한다

神鏡女子피거課題

朝鮮氷上聯盟主催의 朝鮮神宮奉贊氷上競技大會女子피거ー競技는 來十日午前十時부터 淸凉町링크에서擧行하기로되엿바 同競技의課題는 다음과갓다

▲스쿨피거ー

高校蹴球

第十四回全日本高等學校蹴球大會最終日의 武藏高、對松山高、準決勝戰은 六日午後二時부터 京都岡崎公園運動場에서 열렷바 二對零으로 武藏高校가優勝하엿다

(番號)(名稱)(順序)(係數)

1 써클 RFO·LFO 1

2 써클 RFI·LFI 1

5A 천지 RFOI·LFIO 1

▲푸리ー피거ー二分間

高專럭비準決勝

全日本高等專門학교럭비大會 第三日은 六日午後一時半부터 다음과가튼 準決勝을 大阪花園運動場에서 行하엿다

明大豫科 24 (16-8 / 8-0) 3 三重高農

明治專門 8 (5-3 / 3-0) 3 東京工專

올림픽會場問題로

調査委員會設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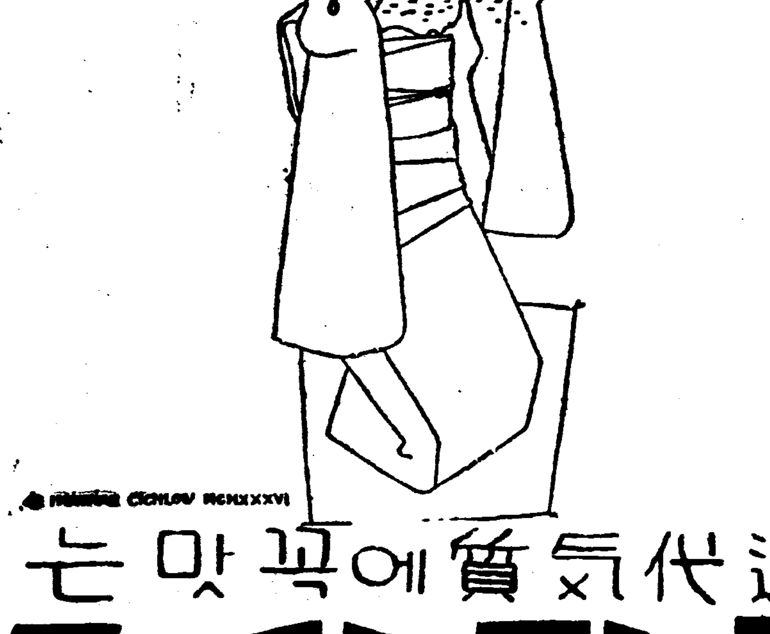
【東京電話同盟】東京올림픽會場決定問題에 關하야서는 올림픽組織委員會와 體協올림픽委員會에서 問題視되여오든바 今番組織委員會에서 協議한結果 會場調査委員會를 따로設置하고 九日에同調査委員의 最初會合이잇슬터인데 會場候補地中에 가장有望視되여잇는 代代木案은 兵營과練兵場의 移轉問題로 因하야實現이 困難하며 建築豫算에 잇서서도 大削減을보앗스므로結局 神宮外苑의 諸施設을 併用하는外에 別다른 方法이업서 代代木練兵場一部도 使用할수잇도록 陸軍側에 諒解를求할터이라고한다

名藥案內 림질
急性慢性이나 오래된 림질에 아모리 불치라도 만일 도리어 약을쓰서 낫지못하신분은 즉효한 이라는 약을 쓰시요 (服用七日分一圓五十錢 (地方郵料二十錢)
七日分二圓四十錢
京城鐘路四丁目五九 日光製藥社 電光二三四三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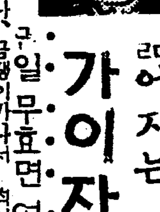
小兒內科 趙漢英醫院
血液檢查每日施行
京城府鐘路町 電光一九八七

仕奉引割二頭年
핸드빽專門店
夏 (夏) 屋
一月六日부터 一月十五日까지
1자투리를利用하야安價로핸드빽을製造하야드립니다
2핸드빽을安價로修繕하야드립니다
3夏屋製品은一年間無料로修繕하야드립니다
홈스판·실·비로ー도·말총핸드빽等에限함
京城府本町二丁目 電話本②七四九番 ラシク

山羊乳 キング山羊牧場
瑞西直輸入系優良山羊養成 京城東小門外城北町
電話光化門(3)二三五番
振替口座京城三三〇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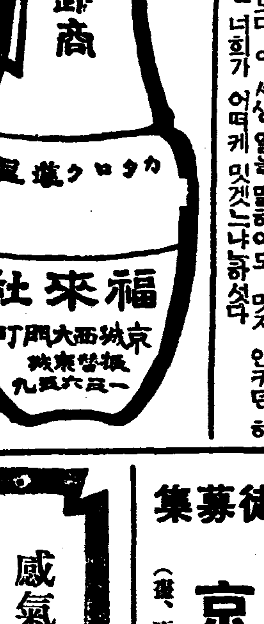
近代氣質에꼭맛는
クッチンランラン
구 직 란 란


보음보양 려어지는
『가이자ㅡ』 전문약을 쓰시오
구일 무효면 여하한 책임이라도 집니다
『가이자ㅡ』가 천하에서 제일입니다。동서양에서 제일조흔 정분만드럿답니다
절대로 신성당약을 신봉하시고 쓰십시오
약가 십원 오원 삼원
경성서대문 신기신성당약품주식회사
電話光化門三三四番、振替口座京城四九五〇番

京城外國語學院 新學期生徒募集
外語ー中語·英語·獨語·佛語·エス語(各初·中·高等)
▲甲組高普一學年入學準備▲乙組高普二三·四年補缺準備▲開學一月八日校址京城授恩町▲規則要二錢切手(電光二一五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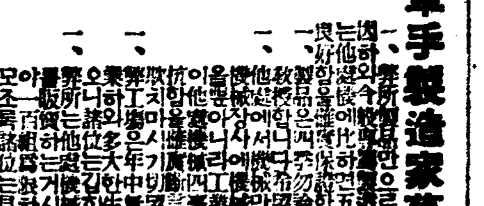
今や言論の時代 雄辯家出よ!
◆演說の事なら何んでもわかる!
雄辯の秘訣を公開す
式辭と演說挨拶の仕方

五十錢の書が一千部限り 特價一圓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區西町 振替大阪五六〇一四番 現代出版社



거듭난생명

『예수』당시에 한우수한 학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잇어서 『예수』의 교훈에 감동되는 마음이 잇섯다 그러나 『예수』를 배척하는 무리 중에 잇어서 공공연히 『예수』를 방문할수 업슴으로 밤 시간을 벌너서 한번 차젓다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선생께서 하나님께로 부터 오신 선생인줄 아나이다』하엿다 물론 자긔도 『유대인』사회에서 한 우수한 지위를 가진줄을 스스로 알엇겟지만 『예수』를 특히 인간 중에 참 우수한 자격자로 안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인간으로만 처서 노픈 선생으로 안다는것이 그리 신통한것이 아니다 첫재 알아야 할것은 인간으로서는 그러케 지식으로 우수하더라도 착하다 할만한 인격이 업다는것이다 그리하야 어떤 우수한 인물이라 할만한 청년 한 사람이 와서 『예수』더러 『착하신 선생님이여』하고 말할 때에 『어찌하야 나를 착하다 일컷느냐 하나님 외에는 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업나니라』고 대답하섯다 그러함으로 인생 그대로는 아모 밋을만하고 자랑할것이 업는 이상에 불가불 다시 나야할 필요가 잇는것이다 그래서 말슴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안호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나니라』하섯다 『니고데모』는 침 육체적 인간뿐이라 신령적 의미를 아지 못하고 『사람이 늙으면 어떠케 나겟삽나이가 두번 어미 배에 드러갓다가 날수 잇삽나이가』 이러케 우직하달 만큼 밥문한 것이다 『예수』는 이에 종용히 대답하시기를 『육신으로 난것은 육신이오 신으로 난것은 신이라 놀내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소리를 들어도 어데서 오며 어데로 가는지 못하나니 성신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하시고 탄식하는 말슴이 『우리의 아는것을 말하고 본것을 증거하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밧지 아니하는도다 이 세상 일을 말하여도 밋지 안커던 하물며 한울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떠케 밋겟느냐』하섯다


東亞軍手製造家募集
一、……
ゴム引万年軍手朝鮮總代理店
東亞手袋工場
京城府黃金町七丁目四番地
電話本局②五九五七番·振替京城一四五七一番
【店主募集】

生徒募集
簿記珠算 官廳銀行會社商店實務員短期養成 職業斡旋 一月八日新學期開始
京城實踐簿記學院
(晝、夜間部學則進呈) 太平通二 大漢門橫入

感氣의기침
熱氣의기침
せきに
鎭咳 祛痰
コデチン
고 데 친
定價 卅錢·五十錢·一圓·二圓
發賣元 大木合名會社 東京神田·大阪淡路町

結核退治

신성당에만잇는 폐병약을 쓰시오 다년간 전문으로 연구하야 신발명하얏습니다

更生

病苦海에서 救援을바더 順風에 돗을달고 前程九萬里의 洋洋한 人生幸福을 限업시누리고간다

폐병 부족증 늑막염엔 나오뻬ㅡ가제일

효력잇는 세계에서유명한 신발명약제가만히 드럿습니다 폐병은 불치의 난병으로년 사망자수가 수십만명이되는대 종래의 치료가 불완전하얏다 입때까지는 환부의 균만 죽이랴고 드럿스나 그래서는 절대로안낫는다 살균도 필요하나 한편으로 몸도 보하고 잠식(蠶食)하는 부분을 막는법이 새로 발명되엿다 즉 살균보혈포위제지(包圍制止)의 삼작용을 식히는대 여러가지로애를썻다 제일 약과 음식과 일광욕과 산소료법카루슘료법등이 잇스나 마음대로 되지못한다 그런대 한가지약으로 이여러가지 작용을 일시에 다하는 참 신효한 약을 발명하엿다 족삼기의 중병으로 고통하는 환자도 이약을먹기시작하야대효본 참 신기한 약이다 이러한 자신이 잇슴으로안심하시고 별별약과 치료를하야도 안나어 고통하는분은 일시라도속히 「나오뻬ㅡ」를 꼭쓰시오 구미업고잘체하고 기침하고담을뱃고 열이나고 몸이 파리하고 혈담을뱃고 피를 토하고 숨이차고 원기업고 가슴이 압푸고 엽구리가 결니이고수족이 찬분은 쓰시오 (약갑) 삼기용 어십원이기용 십원 초기용 오원 경성신성당으로 주문하시면 당일로 비밀이 보내드립니다

滿天下에 謝禮합니다

신성당 폐병약 나오뻬ㅡ(NAOPE)를선전하자 경향각지에서 주문이답지하야대성왕을이루게할뿐아니라 이제껏별별치료와약을써도 신통치못하야 신음하다가 나오뻬ㅡ를쓰고갱생(更生)의깃붐을금치못하야 감사장까지 보내시오니감명하는바이며 일일히답사치못하옵고지상으로 삼가사례하나이다。

부족증 늑막염 폐병엔 나오뻬ㅡ가제일

약갑

특제 삼기용	이십원
이기용	십원
초기용	오원

나오뻬ㅡ의효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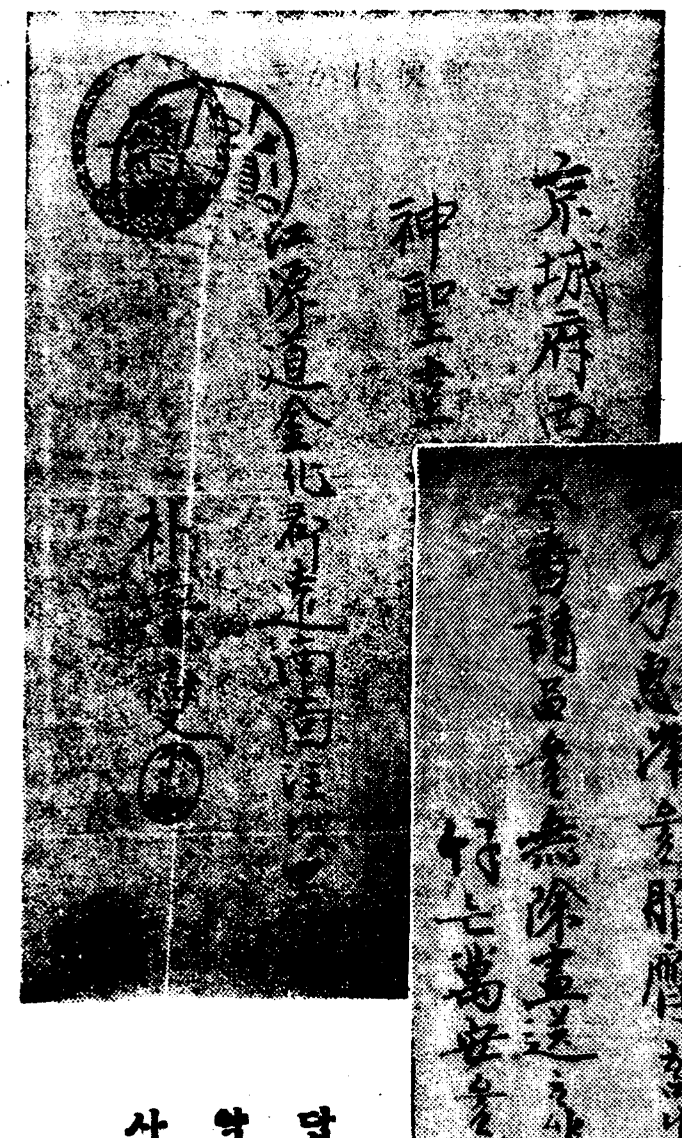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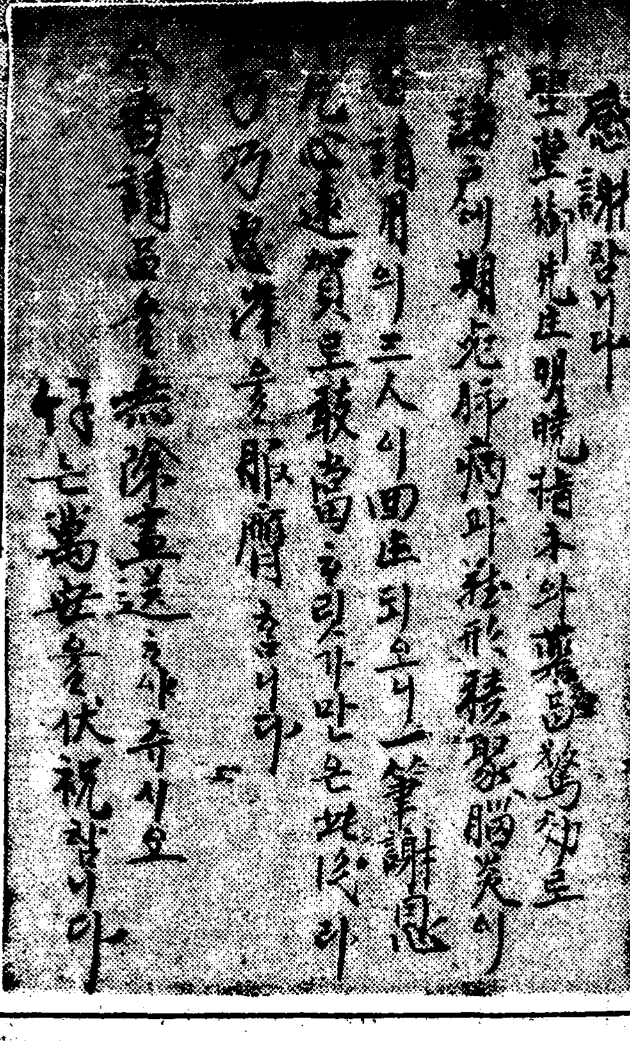
- 肺結核(폐결핵)
- 肺結核浸潤(폐결핵침윤)
- 肺尖加答兒(폐첨가다루)
- 肺炎(폐염)
- 慢性氣管枝加答兒(만성기관지가다루)
- 肋膜炎(늑막염)
- 腹膜炎(복막염)
- 腸結核(장결핵)
- 結核性體質(결핵성체질)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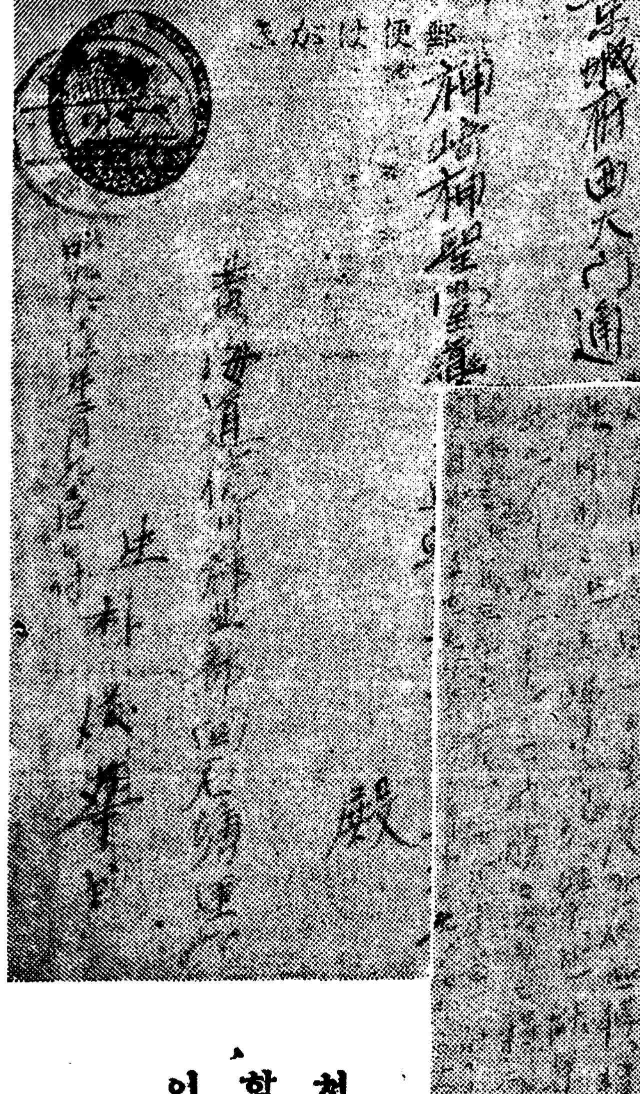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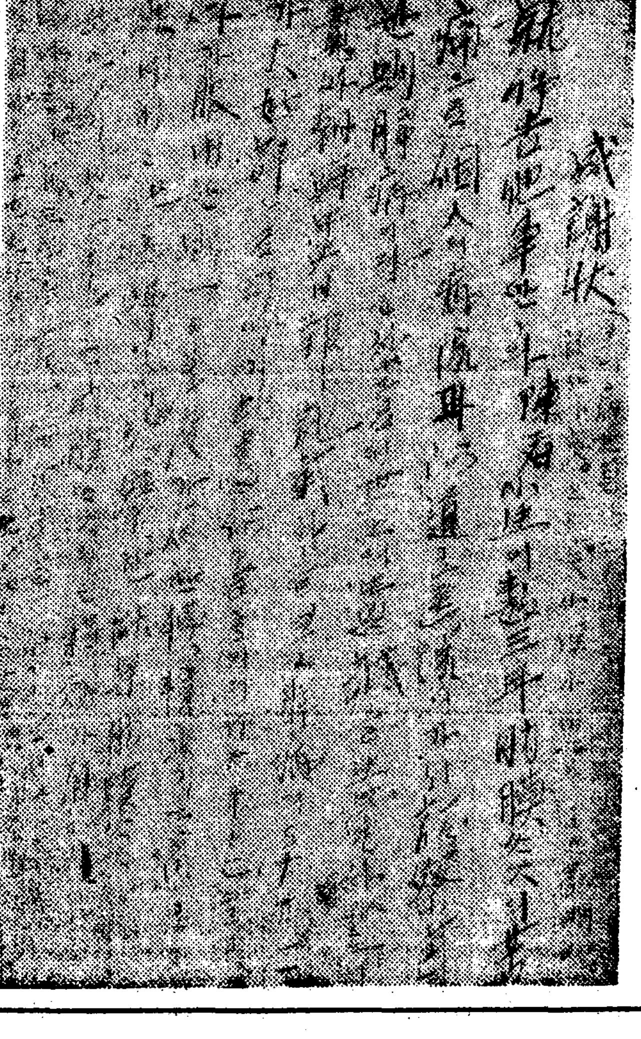
京城西大門電車停留場側五

電話光化門三三四番(제일큰백옥양관)

천만가지 설명보다 실지로 약효보신분들의 이편지를 보십시요약효를 사실로 증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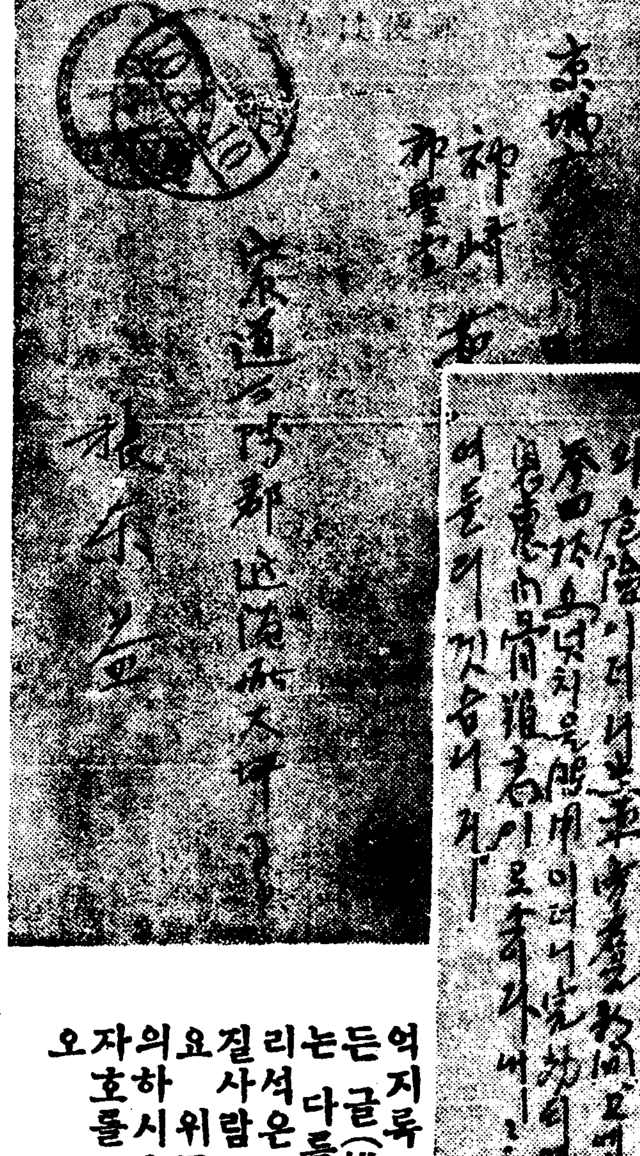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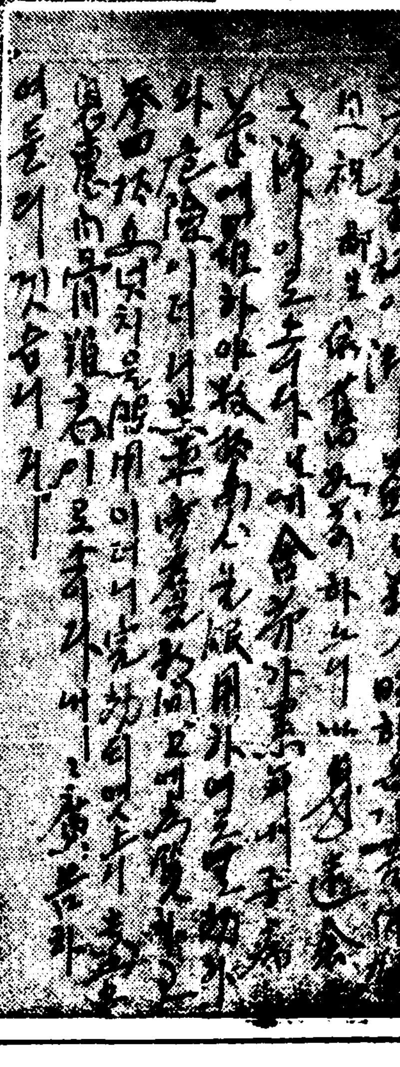



답지하는감사장 약효를 사실로증명

천하에 소개안할수 업습니다 이사실을

약은 시각을 다투는것이오 일시라도 속히쓰시오

억지로청하야바든글(推奬文)과는 다름니다어리석은 피업에빠질사람도 업겟지요 위조품에 주의하시오 신성당자호를 잇지마시오

사라저가는 거리의 정조……방망이 깍는 하러버지

겨울반찬으로 환영 밧는……명……난……젓

나쁜것은물깜칠을한다

洪善杓

요사이 만히먹는명란젓은우리조선사람에게는 겨울반찬으로는 업지못할 물건입니다 일본사람은 물론 외국사람들도 대단히 진기는것입니다 그럼으로 그수용이 년년히 느러 올해에드러서서도 벌서 수만통에 이르럿다고합니다 이 명란젓이라고하는것은 누구나 다ー아시는바이지만은 북어알을 약간 절여서 만드는것인대 우리들은 북어라는것은대개 원산서 만히난다고하는것이나 명란젓이란것은 신포(新浦)퇴조(退潮)에서 제일만히 만드는것인데 원래부터 알이란것은 대개다른동물도 그러한 영향이 만히잇지만은 북어에잇서서더욱 심한것은 명란의 번식은북어체격에의하야 성숙이 완전한놈은 그알도 상당한지기에이르면조흔알을가지고잇든것을 잡아보면 상등품건이되는고로 북어중에 제일성숙한놈이 신포、퇴조근처로만히오는까닭이지 신포、퇴조명란을 쓰는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상점에서 어떠한것은 또렷또렷하게 포막이 분명한거와 포막이 모두터저 헝트러진것을 볼수잇습니다。그뿐아니라 맛도 또렷또렷하고 성한놈이 훨씬 맛이잇습니다。북어가 발육이 잘ー되여 성숙될대로 잘ー성숙이되여잇는놈을잡아 알을 끄내면 포막도 성하고 그속에든 알맹이도 또렷또렷하게 영그러 조금 굵은듯하거이요 북어가 성숙이 충분치못한놈은 알의포막도 완전치못하야 대개 뱃대기에서부터 끄낼때부터 터질뿐더러 속ー알맹이도 찌글찌글하야 용적이 훨씬하야 적게되는것입니다。

명란은 제일좋다고하는것은본곳에서 알을끄내여 성한놈으로골라 대상자리간는곳에 물을빼인뒤에 소금에 굴리여통에너어가지고 온놈이라야 맛도 제맛이나는것입니다 조치못한것은 포막이 터진대로엽롯에 소금을 뿌려저편것인데 그색갈로보면 염료를칠것이 보기에는 대단히 조와보이는것이나 그알맹이를 드려다보면 대개 찌글찌글한놈이 만히섞기여잇고 맛도썩랏타고 할수업는것입니다。그뿐아니라 알것이비쌀때에는 북어알이외에 다른알을 명란알로 파는일이잇는데 어떠한때에는 대구색기에알을 모아가지고 고추가루와 염료를 섞거 파는일이 잇는데 얼른보면 아려내기 어려우나 만히 먹어본사람은 아려볼것입니다。대구알은 보통 명란보다 조금 크고 색갈도 염료를한것이라도 조금누른색이잇고 속 알맹이가 명란보다 질고 빽빽한기운이잇는것입니다 그러한고로 조흔명란은 첫재색갈이 너무 꿈개붉지안코 조금붉은중에도 약간노른색이띄이고 포막전체가 과히크지말고 터지지안코 성한중에도속알맹이가 성하게 또렷또렷한것이 조흔것입니다 이명란을 좀더 맛잇게 먹으려면 조흔놈을 사다가 채판가튼그릇에 퍼담고 참기름을발나 볏에약간말리여먹으면 더욱맛이조흔것입니다。

가정의학

과승치(過乘齒)

問 본인은 금년이십팔세의남자이온대 우에압니가 특별히크게나고 사이가버려젓는대 그사이로 조고마한 송곳처럼생긴이가 한개낫습니다 보기에 너머도흉하니 이것을빼버려야조흘는지 그러치안호면 그대로두어야할는지 자세히교하야주시기를바랍니다 (市內城北町 一讀者)

答 우리가 말하기를 그러한 이를과승치(過乘齒)라합니다 그 이가병적으로아프다든가 그러치안호면 여페이를상하게한다든지 하면 빼여버려도무관하나 아모 이상(異常)업시 단순히모양이흉하다할뿐이면 또한여자와달라남자이니 그대로두어도과히해될것은업슬듯합니다 (세부란스病院齒科 金詰顯)

잘때이를가러

問 이십일세남자인데 아해적부터 잘때에이를갈며 잠고대를합니다 치료법을가라처주시기바랍니다 (定州生)

問 이십오세남자인데 잘때에 이를가러견정이오니감지안홀방침을가라처주십시요 (元山 一問生)

答 이상두분에게대답하겟습니다 잘때에이를가는것은 습관으로그러켓습니다 이버릇을고치는약은업습니다 취민제를사용하는일도잇스나 몸에오히려해가됩니다 그런고로 자기전에는음식을먹지말고 저녁은 조곰먹게할것이며 나제너머피곤하는일을피하게할것이고치실성을도가너머흥분한것도조치못합니다 ([illegible]病院長 朴榮米)

과음하면 해되는줄 번연히알지만……

신년기분으로끗장업는술타령

나종몸처리는어떠케

새해를 맛는기쁨이라해서 술먹는사람들은 정초에는이때저래 술로연명을하고 술기분으로 세월을보내게됩니다만 술이란 사람이먹을것인지사람이술에먹히는지경에이르면 그것은 기쁜술이아니요 통탄할술이될것입니다。적당히 먹으면 영양이되고 질거우며、식욕을 증진하며 먹은술의 일이퍼ー센트는몸함으로 배설될지라도 나머지알콜이체내에서 연소(燃燒)하기때문에 함수탄소지방(含水炭素脂肪)을 절약하는것이되어 소화기가 튼튼한사람은 살이 찌기까지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적당한정도로 먹는다는 조건하에서말이고 일이퍼ー센트이하의 알콜을 포함한술이라면 문제업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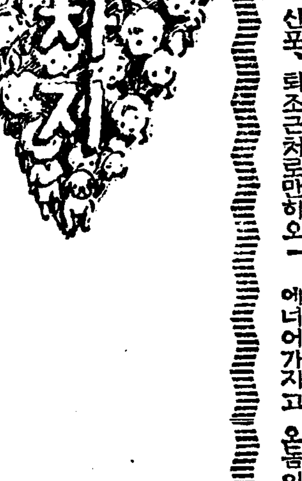
어떤사람은 떠퍼노코 술은 몸에해된다고 떠듭지만 이것은 극단의말입니다 술을못먹는사람도 병에걸리는바에 술먹는사람의병을 모두 술ㅅ병이라고해서 될말입니까。그런즉 술이란 체질에따라 적당히 먹어야할것입니다。

◇

그다음에 술주정을시하는사람은 술먹기전에 약간요기를하면 좃습니다。그리고 술먹을때는 누구나 중소수(重曹水)탄산수(炭酸水)속사이다 라무네 소ー다수등속의것을 마시어가면서 먹는것이조흐며 감을먹으면 감에는탄닌(鞣)과유사한물질이잇서 이것이 알콜과 화합되어술을깨게하는 작용이잇는즉 술군은아모조록 감을사랑할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마나한말이지만 조금이라도 몸이병이잇는 사람은 절대로술먹지말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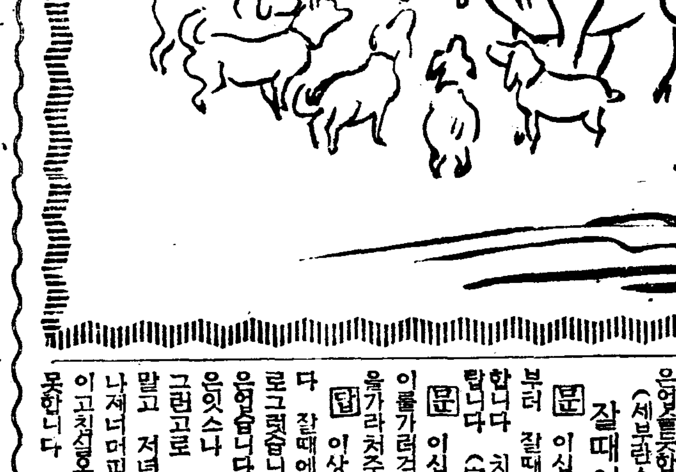
술먹은 이튼날 속이보깨고가슴이 배근할 경우에는 음식을 먹지안는편이 좃습니다 위가약한사람은 적당한 위장약을 먹을것과 구역질이난다거나 배가아픈증이잇거든 얼른토해버리든지 설사약을 먹어배ㅅ속에잇는 고약한것을 죄다배설하게해 ― 야합니다



〃소의힘〃

소 한마리의 힘하고
온 동리에 잇는개의
힘하고 어느편이셀까
소는 구루마 우에 온
동리 개를다 태우고
선선히 끄럿 습니다。
그러나 개들은소가올
라탄 구루마를끄으러
보앗스나 꼼자도안햇
습니다。그래서영리한
개는 소보고 짓는일이
업서요。

(글선사람 황윤수)



동화(童話) 왕자와거지

맥・토ー웬 原作 崔秉和 翻譯 (49)

폐하께서는 제손에 상처가 잇는것을 보시고――아직것 흔적이 잇습니다――파수병정놈을 꾸중하고 오마하시고 나가실적에 책상여흘지나시다가 책상위에 노여잇는 옥쇄라고 하는것을 집으시더니 어듸다가 둘가하시고 사면을 살펴보시엿는데 그때 눈에띄운것은……」

「그러탕。알엇다。아、이러케 고마울데가……」 남루한옷을입은 국왕은 기쁨에못이기여 펄펄 뛰면서 부르지젓습니다。

「국왕폐하만세!」

「갓다오너라。「센트・쫀」경 벽에 걸려잇는미라노갑옷 팔떼이속에 옥쇄가 드러잇다」

「그럿습니다。폐하、꼭드러마젓습니다」하고 롬・칸틔도 부르지젓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영국국왕의자리는 폐하의것입니다。자 센트・쫀경 날려간거가티 갓다오시요」

사람들은 모두 꿈을꾸는것가터서 단위에 잇는사람이나 단아래에 잇는사람이나 미친사람처럼 떠들기시작하엿습니다。어떠케 들떠드는지 누가 무슨소리를하는지 도모지 아라드를수가 업섯습니다。그때 별안간 센트・쫀경이 한손에노피 큰옥쇄를 방들고 단위에 나타낫습니다。방안은 또 조용해젓습니다。그다음순간

「정말국왕폐하 만세!」하는소리가 방안을 떨떨 울리엿습니다。기쁜 음악소리가 울려왓습니다。일동은 수건을끄내서 흔들엇습니다。귀족과귀부인들은 그아페 무릅을 꾸럿습니다。그리고 그가운데는 영국에서 제일노픈한사람―남루한옷을입은소년이 상기된얼골에 만족한 우숨을띄우고 엄숙하게 서잇섯습니다。롬・칸틔는 말하엿습니다。

「폐하! 자、옷을밧구어입으십시요。이불상한 롬・칸틔에게 그남루한옷을 주십시요。」그때 자근아버지섭정은

「이패심한놈을 런던탑속에 가두어라」

하고 호령을하엿습니다。그러니깐 새로된국왕은 그것을 막으면서 말하엿습니다。

「무슨말을하느냐。그애가업섯드면 나는왕의자리에 나올수업슬번하엿다。그의몸에 손구락하나 대여서는안된다。소년、너는 나도 둔곳을몰는는 그옥쇄를 어떠케아럿느냐?」

「폐하、저는 날마다 그것을무엇에썻습니다。」

「무엇에썻단말이냐?」롬・칸틔는・황송스러워서 얼골을 숙으리엿습니다。

「말하여도조타」하고 국왕은 재촉을하엿습니다。

「폐하、황송합니다마는 호두는까는데―」가엽게도 이대답을듯자 일동은 와ー하고 소리를 크게내면서 우스므로 롬・칸틔는 어찌할바를몰랏습니다。동시에 이대답을드른사람들은 이제는 롬・칸틔를 정말국왕이라고 생각하는사람은 업시되엿습니다。

국왕과롬・칸틔는 옷을밧구워입엇습니다。그리고 다시 즉위식을거행하게되고 새국왕의머리에는 왕관이 빗나고잇섯습니다。이것을알리는 대포소리는 런던장안을울리고 백성들의환호하는 소리는 하로낫하로밤을 끗치지안헛습니다。

마일스・헨돈이 런던다리에서국왕을이러버리고는 국왕을 차즈려 이골목저골목 헤매단엿습니다。또 어느길목에서 못된놈들에게 어더맛고 놀림감이되여잇게다생각하고 새벽까지 수십마일을 거러다녓습니다。배는고프고 잠은오고 도모지견딀수가업섯습니다。빵을사먹을라고하엿스나 그북새통에돈지갑을 이러버리여서 돈한푼업는 거지가되엿습니다。

날이밝자 헨돈은 또거러섭니다。정녕코미친아이는 국왕의행렬을따라 갓스려니하고 웨스트、민스터ー대사원압까지 왓습니다。그리고고근처를구석구석 차저보앗스나 소용이업섯습니다。이곳저곳헤매이는동안에 헨돈은 수목이울창한 템스강변에이르럿습니다。멀리서 대포소리가 들리엇습니다。

「아ー지금 새임금님의 즉위식이 거행되는구나」하고 고만 조름이와서 그이튼날 대낫까지 잠을드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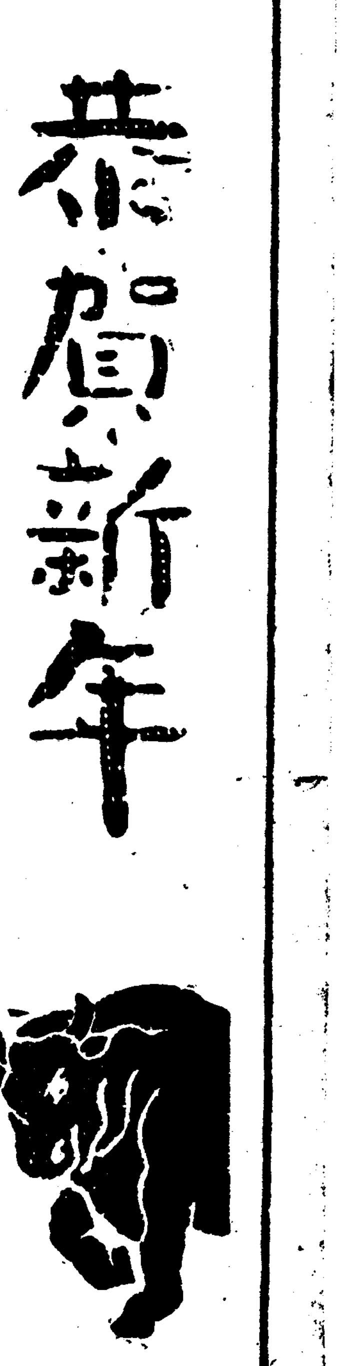
헨돈은 잠이깨자 강물에가 세수를하고 물론배를채웟습니다。그리고 마로ー경을차저가서도움을내서 주림을면하리라고 생각하고 또거러갓습니다。

열한시가되여 간신히 대궐근처까지 오게되엿습니다 마침그때 대궐에서 일보는 소년이 그곳을지나다가 헨돈을보앗습니다。헨돈은 그소년에게 마로경에대한것을 무럿습니다。그리하야 마로경이 대궐안에잇다는말을듯고 리차ー드경의아들 마일스・헨돈이 차저왓스니 말좀하여달라고하엿습니다。

「그럼 저곳에서 기다리시요 내가다녀나오기까지。」

소년이 가르킨곳은 대궐담이 울쑥드러간곳으로 비오는날 파수병정이 드러가안게 들걸상이잇섯습니다。헨돈이 그들걸상에가안자 얼마안되여서 사관(士官)한사람이 창기병(槍騎兵)을데불고 그아페지나다가 헨돈을보자 웃뚝서더니 헨돈을나오라고 명령하엿습니다。나가니깐 대궐근처를 도라다니는 수상한놈이라고 붓잡엇습니다。헨돈이 말을할라고하엿스나 사관은 소리만지르고 부하 병정에게명령을하야 헨돈의칼을 빼슨다음 몸을두지기 시작하엿습니다。

恭賀新年



端川

端川西松組配下 徐廷德

咸南端川邑內 御料理 永樂園 電話二一番

端川警察署

端川公普校 保護者會

端川國防義會 吾夢分會

端川邑學校園

端川國防義會 隻上分會 / 端川國防婦人會 隻上分會

端川國防義會 汝海津分會

端川國防婦人會 廣泉分會

端川阿片組合 大新支部

端川畜業組合 理事 金弘賢

端川新滿 振興委員會

端川邑內 徐春植

端川[illegible]公普校 職員一同

朝鮮運送株式會社 端川出張所

端川國防義會 奋洞分會

端川廣泉公普校長 竹內泰宗

端川廣泉酒造場

朝鮮商業銀行 端川支店

端川驛前 松本組出張所

端川 張德河

端川稅務署 職員一同

端川郡廳

端川郡新滿面

端川邑 農益商會

端川 禹正鳳

端川吾夢里驛前 木炭商 金昌應 朴宗淑

端川 福貴面 職員一同

端川阿片組合 蓮𥘉支部

端川何多公普校 職員一同

端川何多面 職員一同

端川汝海津 石黑松之助

端川 汝海津酒造場

端川廣斗金融組合 洪承虎

端川波道面

端川新滿面 五柳青年團

端川邑內 金賢獸

端川邑內 安昌柱

端川南大水利組合

端川邑內 新興商店 許粟先 許昌參

端川 李柱協 池將蓮 金瑾奎

新元

載寧郡新院面 面長 柳致培 外職員一同

黃海線新院驛前 不老釀酒場

新院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載寧郡新院 新院金融組合 職員一同

載寧郡新院 崔承鎬

載寧郡新院 肥料商 洪性蓮商店

中國醫院 金基秀

載寧郡下聖面 職員一同

載寧郡青石頭 公醫 金采說 / 司法書士 張履根 / 面長 李昌周

載寧郡青石頭 金融組合 職員一同

載寧郡青石頭市 綢緞布木 海一商店

載寧郡青石頭 李鳳旭

黃海線下聖驛前 金正俊商店

黃海線新院 中華料理 萬福園

三水

三水邑內 公人俱樂部

三水邑內 三水釀造株式會社 專務取締役 姜一起

三水邑內 仲坪場商務組合

共興株式會社 三水出張所

三水郡自西面上洞口里 石河

三水郡舘興面事務所 職員一同

三水郡舘興面三德市 林昌盛

三水郡舘興面三德市 綢緞布木商 三德洋行

三水郡舘興面三德市 綢緞布木 明柱

三水郡舘興面三德市 貿易商 曺炳柱

三水郡舘興面三德市 綢緞布木 德昌商店

清州

郡是製絲工場

清州酒造株式會社

清州刑務所 職員一同

華盛館 電話二二二番

淸一館 電話一七七番

宇田亮太郎

清州本町一丁目 大昌洋靴店

清州校長會

金曜會

清北線自動車營業所

清州米穀商組合

無盡金融會

清州郡廳

大田電氣株式會社 清州支店

本町一丁目 鷄林食堂

清州邑

朝鮮石油株式會社代理店 中鮮商事株式會社 電話二七〇番

朝鮮忠北清州本町三丁目 注文服專門商 清州高普商校指定洋服店 普信洋服店 主 崔潤植

海産物商 曹元承

邑會議員 崔東善

高見酒造株式會社

朝鮮石油株式會社 烏致院代理店 清州支店

安一洋服店 主 安昌根

趙大衡

長春商會 電話三三三番

道會議員 金元根

不二自轉車商店

京城地方專賣局清州出張所 專友會

道會議員 閔泳殷

忠北清州邑市場 和洋菓子卸賣 清水菓子店

邑會議員 中文雨

林憲祿

花月カフエ

文房具 博文堂 電話一五五番

清州本町一丁目六七 カフエ 清州會館

清州邑本町一丁目 中央寫眞館 主 李洪珪

清州[illegible]忠會 會長 金慶壽

五十嵐釀造場

陰瑨榮

和洋百貨 尹漢淳商店

愛國生命保險株式會社 清州事務所 金正科

朝鮮[illegible]株式會社 清州支店

米院郵便所 鈴木留五郎

南北棉業株式會社 清州繰綿工場

交通金融組合 松永一郎

南一面長 韓範求

北一面長 李圭鉉

清州道立醫院

人間性의問題와 近代的文學精神

(1) 金龍濟

年年의 常例이지만은 新春을 마지할적마다 나는 自然現象의 新陳代謝와 人間生活의 新舊形態에 對하야 그의意味와 精神을 새로운 感想을가지고 興味잇게 늣기여진다。

自然의新舊 時代精神의 新舊 人生觀의新舊 生活形態의新舊

一人一 人間性의新舊 文學精神의新舊等等에 就하야—그의 歸着하는곳은『舊』의否定이며 그것의 忘却이며그것의批判的攝取인 同時에『新』의歡迎이며 그것의 希望이며 그것을信念하는 勇氣일것이다。

要컨대 人間은 希望動物이며 人生은 希望의過程이며 歷史는 希望의證人이라는것이다。新時代에잇서서의客觀的現實과 主觀的條件을 眞實的으로具象的으로表現하라하는 良心的創作態度 方法 努力을 나는 近代的文學(藝術)精神의 進步性이라고 본다。

朝鮮文壇의 過去一年의 成敗를 具體的으로 總批判하고 三七年의 우리文壇의 動向을 打診함은 나에게는 當分 準備不足이며 또는 다른 批評家들이 만히 하야줄것으로 생각함으로 나는 이에 人間性의 新舊與奪과 近代的文學精神에 就하야 白鐵君의『人間探求論』을

一具一 體的 全面的으로 批判하야 보고저한다

白鐵君의 그所謂『人間探求』의 本質的 根據點은 新時代에 新生活을 營爲하고 그것을 希望하는 人間層에 或은 社會的個人에 잇는것이아니고『空想的人間의 末梢的個性만을 過重視하는 白鐵君自身의 消極性 退嬰性 小市民性을 社會的으로合理化하라는『人間白鐵의欺瞞的個性』으로서 出發한 것이 아닐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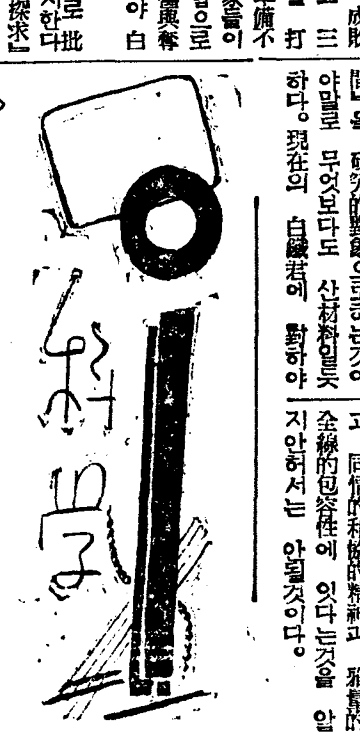
그러나 나는 어디까지든지 無私公正한 批判的 態度와 立場을 직히고저한다。白鐵君自身이『惡意의中傷』이라고 强烈히 反對하고 辯明하는바의 反動者라는 淸算的論定을 全部的으로用意하라는 意圖는 업다。

換言하면 白鐵君의 現在의人生觀과 文學論을 具體的으로 全面的으로 默視할적에 나는 그의 本質的退嬰性의面과 部分的進步의面을 同時的으로 承認한다는것이다。卽半敵半友의

一立一 場이라고 말할수도 잇슬것이다。그것은 決코『妥協』的意味에 잇서서가 아니고 正當한 批判으로서 나오는『和協』的 精神에 잇서서이다。

나는 白鐵君의『人間探求論』이 一個人으로서의『白鐵의個性』으로서 出發한것이라고 指摘하얏다。이點에 잇서서는 白鐵君自身도 그대로 承認치아니치못할것이다。웨그러냐하면 그의『個性尊重』이 文學論은 이러한 根據點에서만『特殊的』으로 存在할수잇슴으로이다。이러한 意味에 잇서서 白鐵君의『人間探求論』을 最適히 批判하라할時에는 君의 論法에依하야『白鐵의 思想的感情的生活에 잇서서의 個人的人間』을 硏究的對象으로하는것이 아말로 무엇보다도 산材料일듯하다。現在의 白鐵君에 對하야는 多少의 寬大한 時代的同情은 未禁하나 社會的으로 마이나스의地位에 落伍하고 그의全體的인生活形態는 不得已하얏거나 意識的이거나를 勿論하고 消極的이고 退嬰的임은 事實이다。

一多一 數한批評家들은『反動者』라고까지 極論하야 攻擊하고잇스며 白鐵君自身도『그程度까지 아니냐』는條件下에『良心的』으로 自己評價는 하고잇슬것이다。그러나 白鐵君의 內部的生活感情과 文學論에 잇서서 表明또는暗示되여잇는自己矛盾도 적지안흔 復雜微妙한『苦悶的良心』과『消極的進步性』은 그의機能과 效果가 微弱하다하더래도 그의部分的푸라-스를까지 抹殺하라는 淸算的批判에는滿足할수가업다。가장 새로운意味에 잇서서의『近代的進步的精神』은淸算的小兒病性에 잇는것은 아니고 同情的和協的精神과 雅量的全線的包容性에 잇다는것을 알지안허서는 안될것이다。



現代科學의成果

生活에即한研究몃가지 (四)

崔奎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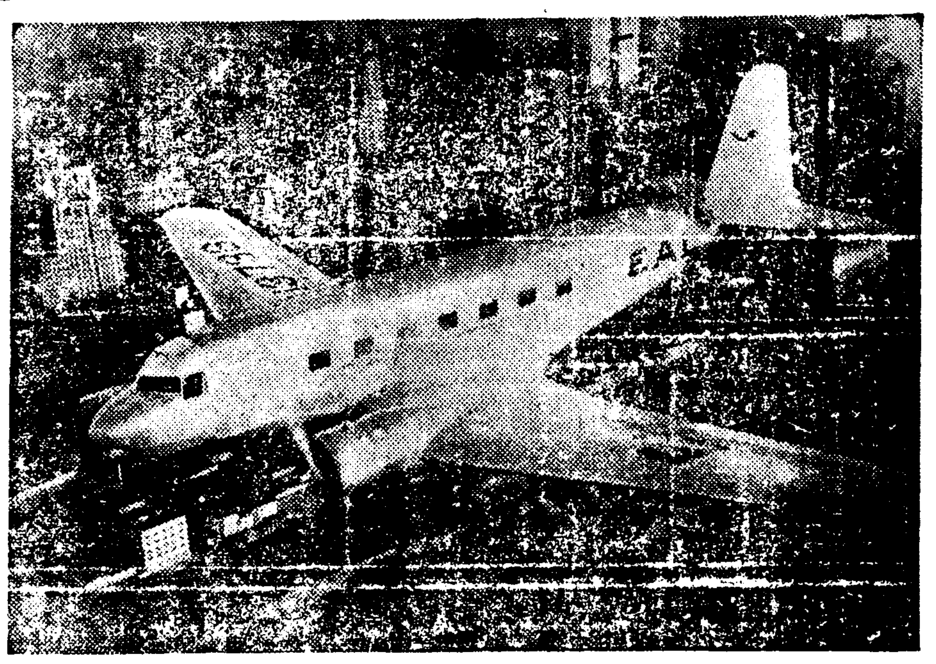
一般高空病症狀의 現出은 大槪五千米假量서부터 發作된다고하나 個人個人의 體質如何에따라 다르다 卽最弱한사람은 二千一百米、最强한人은 八千五百七十二米부터 始作된다 酸素缺乏症의徵狀은 四千乃至五千米假量에서부터 始作된다고한다 初期病症時에는오직조름이오고疲困하야輕頭痛을주는程度이나 六千乃至七千米부터는 第二期症狀이 現出된다 卽頭痛이 甚하며 嘔吐症이나고 意志作用은 極端으로 不統制에 陷하야 注意力 記憶力 努力等은 至極히 衰殘해가는同時에 感情亦是放縱에 陷하야 꼭飮酒時와가튼氣分이라고한다 心理學者의硏究에依하면 酸素缺乏症의 第二期에는 動作的反應은 勿論 判斷과 推理作用의 減退로因하야 時間觀念等이 非常히 鈍하여지며 또는 情意的方面의 變化로因하야 人格의變換을이르키게함으로 꼭 醉人과가튼 行動을하게되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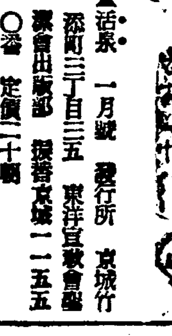
最後八千米前後하야 第三期症狀에入하면 痲痺症狀을始하야 諸感覺의 完全消失 最後로 意識을잃어버리는 同時에 이狀態로放任하면 마침내 生命을 잃케되다 生理學者心理學者들은 이와가티 무서운 酸素缺乏症에 關한硏究를하기爲하야 上空에 該當한人工的低氣壓實驗室을만들고 그속에서 諸種徵候의 分析 對策講究에 專心한結果 마침내 새로운成果를 어덧다고한다 이以外에도 急激한 氣壓低下로因하야 생기는 胃腸內깨쓰 膨脹또는 水蒸氣減少로因하야 氣管支의 障害等 實로 枚擧不遑의感이잇다 그러면우리는 成層圈入口에到達하기도前에 機能、人體에무서운 難關의一齊射擊을밧는것이아닌가? 이에對한徹底한防禦策을 講究하기前에는 成層圈속에숨어잇는 理想的航空路를獲得하기가 不可能할것이다

成層圈征服의몫

新技術

이와가티 頑强한成層圈의障壁들을 우리人類는 着着征服하고잇다 卽氣球를 利用하야 征服한事實은 일즉이 新聞雜誌에 報道한것과가티『삐카博士』의 二十五分間에 一五七八一米까지 上昇한記錄이잇거니와 其後 一九三三年에는 米國서 一八六五五米、三四年에는 蘇聯邦의 二〇六〇〇米、三五年에는 前記米國陸軍 스틔분쓰와 안드손兩氏의 二二〇六〇米의 記錄이잇다。飛行機로는 日本田中氏가 一萬米上空을 突破하야 從來의英國記錄九四〇〇米를 破하엿고 其後 米國쏘세트中尉는 라이트、아빠介機로 一三一五七米의 新記錄을 作하엿스나 一九三四年에 伊國도나지氏의 一四四三三米 現在國際新記錄을 作하엿다 其後三五年에는 蘇聯邦『꼬기나기』氏는 非公認이나마 一四五八〇米의 新記錄을 作하엿고 今年六月에는 佛國女飛行家『일스』孃은 一四三一〇米의 女子新記錄을 作하야 國際記錄을 成하고잇다 그리고 얼마前 新聞報道에依하면 今年九月二十八日英國空軍編隊長『스와인』氏는 四九九六七呎 (約一五一〇〇米)의 驚異的記錄을 내고잇다 그러나 前記勇士諸氏는 如何한 手段方法으로 成層圈의 障害를 征服하엿는가? 第一로機體에 關한 防禦 卽氣壓低下로 因한 發動機廻轉數의 減少를 補充하기爲해서는 所謂過給器 或은 與壓器라는 裝置를 設備하는것인데 그裝式은 여러가지가잇다 이裝置의 目的인즉 高空에서 發動機自然吸收以外에 空氣를 壓縮하야 送入하든가 或은 混合氣를 보내여 發動機의 性能低下를防止하게된 것이다 例컨대普通五〇〇馬力發動機는 五八〇〇米에서 겨우二五〇馬力밧게내지 못하게되나 過給器를裝備하면四六〇馬力까지 낼수가잇게된다이 過給器는 高空飛行뿐아니라 低空에서도 競爭用飛行機等에는 裝備한다 第二로 翼의 揚力과 프로페라의 推進力의 低下를如何히 補充하는가? 이問題에關하야는 아직硏究途中에잇스나獨逸유가쓰『U四九型 佛國 판만一〇〇型及『카프세』一〇型等 成層圈用飛行의 試作이 着着進行中이라고한다 다음으로 人體에 對한 障害問題는 如何히 解決할가? 第一로 寒氣에對하야는 萬一搭乘席이 外界에 突出한境遇에는 操縱者는 所謂電熱服이라는 保溫衣를 着用한다 이는 發動機의 廻轉으로『모트』를 動케하야 發電케한後 電氣抵抗熱을 利用하는 服裝인데 溫度를 自由로 調節할수가잇다 또는密閉한 搭乘席의 境遇에도 그座席室의空氣溫度를더웁게하는 方法을取하고잇다 第二로 氣壓低下를 酸素缺乏에對한 防禦로는 酸素吸入器를 裝備한다 低壓實驗室에서여러가지로 實驗硏究한結果에 萬一酸素缺乏症에걸렷슬때에酸素를約三十秒(三六.四呼吸)동안呼吸하면 直時로 모든症狀이 一消되는것을알게되엿다 그러나 空氣가 如何히 稀薄함에도不拘하고酸素만 吸入하면 症狀이 回復되는것은아니다 高度가 一二〇〇〇米以上의 上空氣壓에서는 酸素吸入器의 效果가 別無한고로 氣壓自體를 地上의 氣壓과 同一程度로 保安지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런고로 搭乘者席을 密閉한後에 外界의 稀薄한空氣를 壓縮送入하는 方法을 講究하엿나니 이것이 近年成層圈用飛行機製作에잇서서 가장 말성거리되는 氣密室論이라는것이다。





(寫眞은 成層圈飛行機)

一漢詩一

白松

抑松 稍岡 ??

三等之二

任實郡三溪面三溪里 金學淵

歲寒窮壑立孤松
蒼翠亭亭不改容
漸漲聲驅空谷雨
綾嶒影動半天龍
閑情自許陶翁撫
淸節堪羞秦帝封
笑煞東園桃李樹
春來能得幾時穠

文化團體의進路

現代的潮流에鑑하야

(三) 韓植

今日의 文化人의 最大의 悲劇은 다만 知性과 現實과의分裂이라는 곳에 잇는것이 아니라 이와가튼 暗澹한 世紀에 잇서서의 自己의 現實로부터 敗北를 知性의

一永遠一 한 性格으로 美化하려보내는 곳에잇는것이다。知性의 把握과 글로부터 生起하는 批判的 에쓰푸리의 減却은 다만 外部로부터의 壓力으로의 剝奪할수는 업는것이다。知性의 敗北는 敗北할수밧게업는만치 微弱한 知性의 把握에잇는것이지 知性그自體에 잇는것이 아니다。文化擁護의 最大의 任務의하나는 文化活動하는 各個人의 意識에잇서서 歷史的으로도進步的인 積極性을가진 文化에對한새로운 觀念을 가지지안흐면 안된다는것이다。그는곳 强靭한 知性의 防衛우에서 만可能할것을 알어야하것다。

우리들사이에서도 若干論議된일이잇는 인테리겐차問題、휴마니즘行動主義等等에關하야 이러한點으로보아서 文化人의共通한 命題로써 自己自身의問題로써 더욱論議되며 글로부터 새로운、바이탈·포-스를吸取하지안흐면안될것이다。『지-드』가말하는것과가티 文化는精神을解放하는것이지 精神을隷屬시키는것이아니라면 이것은 現實을 ○○에서

一捕捉一 할수잇는 批判力과 科學的知性으로부터만이 把握할수가잇는것이다。글로말미암아 우리는더욱文化團體의社會的關心을 노피하며 正當한文化에對한批判的精神을차저야할것이다。文化活動을充分히 또正當하게展開함에는 더욱 이데올로기的으로도積極한性格을賦與하지안흐면안될것이다。文化團體의活動이 가장合理的이고 文化人의一般的立場이가장進步的이것이 되여야할것임을 따라、이데올로기-의問題가特別視되기는커냥 더욱銳利한形態로 그러나 那倂自在한方法으로取扱되며 글로부터 文化的使命이鄭重에잇는것인가를 恒常反省하지안흐면안될것이니 知性의防衛가 도한緊急한 테-마의하나가되는 理由이라고생각한다。

다음으로 現在에잇서서 우리는 各己의文化活動을 堅持하기 ○○하는 이제는수업시 그活動은 ○○을 가장"미니멈"한限度에서하게되는것은 도저不得已한일이라고하겟다。그文化的活動은 ○○出版

一公演一 上演公演의여러가지로公開하는 形式을 取할것이며 스스로公的한表現機關을 가저야할것이다。우리는이에잇서서 쩌-나리즘과의協同을 생각할수가잇는것이다。쩌-나리즘과 如何한것이라하여도 그와 聯絡하고잇는 大衆을 이저서는 안될것이다。大衆과結託하고 大衆의動向을不知하고는 大衆을敎化하며리-드할수는업는것이다。自己의發表機關을 가지지못할때에는 더욱旣往의 쩌-나리즘을 活用하는수밧게업지안는가한다。今日의文化運動이 쩌-나리즘的形態를띠고나오는것은 亦是不得已한事由가잇는것이다。

學藝面新設欄

學生作品欄

中學校以上專門學校大學等의 在學生으로서 硏鑽의餘暇에 지은作品을 收容하고저 學生作品欄을 新設한바研究論文、讀書後感、紀行文、隨筆等을 歡迎하며 考査採錄되는 作品은 薄謝를 贈呈하겟스며 氏名과 在籍校名을 明記할 事

紙上顧問欄

在來의讀者相談室을 廢止하고 紙上顧問欄을 新設하는바 이것은 讀者中에서 日常生活에必要한 質疑를 葉書로 簡單하게 무르시면 本社擔任記者가 一一히 親切하게 解答하여드리기로 되여잇다。但同一한性質의 問題는一個解答으로써함

朝鮮日報社學藝部

戱曲 晩景 (二)

新春文藝二等當選作品

(全二幕)

韓相稷

昌童 여보 기도회시간에 무슨 변들이요 참우참어!
(鳳玉을보고) 얘! 아무랍 말구잇서라
鳳玉 내 듯고야 말테다 녀이 변들이 아버지더러 머라고파 밧치나 어서좃차내던지 잡어먹든지 해라 해
昌童 하! 글세 가만히잇스라니까 자! 기도합시다 마귀가 동해서 그러쿠러 어서 온건 한마음으로 기도올립시다
金女 (드러온다) 아이구 아저씨 안녕하십니까、형님 맛칩 잘왓지? 나가섯슬까바 걱정을 햇는데 (가까히와서보고) 아이구나 기도회를 보시는데 왓구려。
鳳玉 아우님이요 다 꿋낫서어서 올리오우
(기도를 올리려든 昌童은 입맛을 쓰게다시며 이러선다 烱愛는 烱仙을 다리고 자기방으로 물러간다 鳳玉은 그형제를 노려본다)
金女 제가와서 이러십니까 아저씨 (昌童는 말업시 나려간다) 형선네 형제는 나를 보기만하면 피해가니 웬일이요
鳳玉 흥! 말마루 개들이 조 못을 사람이와다 와할께 무어요 내가 미워서 죽을려는데 아마 아우님도원수가티 여일껄
金女 어이구! 애들도 민망머리 스럽다 저이들이 무엔데 제집에 오는사람을 까닭업시 미워한답 난 형님덕분에 대접은 못바뎌두 뒤루 욕만두둑히 먹는구려 (서로 쓰게웃는나)
鳳玉 (나즉히) 지금도 재들아버지헌테 三집을 겨엿지 원 악그놈의 색기들이 보기실혀서 견될수가 잇서야지 그래 형선이란년 말허는결좀 보지 저이아버지더러 내가저이들을 미워헌다구 패바치는구려 그러니 내가 나가구업스면 좀 저이들끼리 입을모아 욕들을 햇겟수
金女 그래 형님、고년을 가만두엇수 참 저이아버지도 안되섯지 고런말을 어디서하는 법이냐고 때려도못주신답
鳳玉 여보 때려주는게머요 나만 그르다구 그러지
金女 형님 내말대루만해요 이집에서 당장 나가겟다구만그러면 그쫌 반하신 영감님이 가만히 게실테요 자식을버리면 버려도 마나님을 내댈이가 잇겟수
鳳玉 어이구 맙쇼 꼴쿡이 세겟는데 자식을버려요! 아무리튼 이집재산을 내손에다너쿠 안저야 해
金女 그럼 그래야하지 머요 내 늬상하는말이 그게아니요
鳳玉 내가 재산만 짝귀구 느러지면 저이들이 날구뛸걸무엇허우 큰 사내자식인들 무슨 컬리가잇서
金女 그런네 지난번 달한든건 어떠케 됏수
鳳玉 쉬! 드르리다 여우가튼 큰게지배년이 엿드를여구 재릴이라우 (두리서 周圍를 휘돌라본나) 그런데 말이야 한 오백석지기 땅을 영삼이 제손으로 도장을치고 내이름에다 중넝은 내주긴 햇지만그 나머지 땅까지 빼서야지 그냥두구는 못견디겟서
金女 어이 저런 분할데라군! 왜그때 따저노쿠 못해요
鳳玉 왜 안그래겟수 만 그놈의 원수가튼 큰아들자식 어떠케 알어챗는지 뒤로 드러노와주려、제아비를 밤낫 따라다니면서 주중대구 야단이겟지
金女 그자식은 어떠케 아럿담
鳳玉 아마도 필시 마름놈이편지로 패시넌가봐
金女 그런 죽일 녀석이잇나、참 일이 아깝게 됏구려
鳳玉 걱정업서 그까짓 마름녀석이야 뒤루 멧운 집어주면 제몸에 떠러질꺼야 그저 두구보사지!
金女 그래 그 큰자식은 머라구나 그럽디까
鳳玉 말이되우 펄펄뛰지 (늘이 깔깔대구웃는나) 그놈이 하는 소리좀 보지 제애비가 죽기만하면 소송이라두 거려서 빼서간다든가、홍그러케 (비정딘다)
金女 영감님도 못나섯지 자식의말이 무에 무섭단 말이요 당신의 맘대로지 다솔내도추구 말내도 말지
鳳玉 걱정업서 내꼭 뺏구야말껄 그놈의 영감을 털뱅이를 맨들구야 말테야 안수어보지 내가 못사나 제가 못사나이 집을 숙박치라도 맨늘고야말테야(鳳玉은 채려입고 나간다)
金女 어그머니나 재가 드릿것구려(듣사람나 쭈변쭈변한다)
鳳玉 (나가는大門쪽을 보며)烱愛야 어디가니?
烱愛 요아페나가 편지좀 부치고 곳올테야요(나간다)
金女 저 기지배도 앙만해도 들뜬게집애야 편지질이나하고 밤마다 싸대기는걸보니까 소문이 풍성인걸 알엇드니 정말 입되다
鳳玉 또새소문이나 엿습디까
金女 말마시유 그전사내는 때버럿답디다 그래 그전사내만나기가 좁어려우 넷날 대신(大臣)지내든 집 손주것다 돈만흔것 좀조우 그런데차버렷데
鳳玉 후작(侯爵)손주 말이지
金女 그래요 그사내를 마다하구 어떤 가난뱅이 사내하구 대기드랍디다 머 사내가 문항을 한대든가 머리는 바람난년 단남한것처럼 뒤우럭하게 길르고대기는 가난뱅이사내래!
鳳玉 그것들 잘되구러 나 그년이 돈남구 양반집으로 시집이나 갈까바 걱정이든이 그런 가난뱅이 사내를 만낫서! (생긴는이) 참 언젠가? 아마 한달전이엿서 동관사는 김부자집에서 충혼이 왓걸내 뒤루 드럿닷지 고 여우가튼년이 잘돼가는혼을 내가 아메서 물렀아우
金女 형님두 너못하시우 남의 혼사일까지 드러노면 죄바더요 사수를 잘으면 죽은 혼이라도 원수가 된답디다
鳳玉 아니야 내성민 그려치안허 내가 못할면 못살시 전실자식들을 잘되게 할줄아우
金女 아이구 형님도! 저 복잇서 잘돼 나가는건 가만둬요 그것들이 잘못살게 돼서 친정에다 지그렝이나 대면 어떠허실나우
鳳玉 흥! 이집재산이 내수중에 드러오게되면 한푼이라도 다 내 내눈을밟아 오늘이라두 다내 이통으로 넘겨만주면 당장에라도 나길걸 속을 썩여가면서 그런 영감을 데리구 살줄아우

▲活泉 一月號 發行所 京城竹添町三丁目二五 東洋宣敎會聖潔會出版部 振替京城一一五五〇番 定價二十錢

▲全滿朝鮮人民會聯合會會報 十二月號 發行所 新京朝日通日本總領事館構內 全滿朝鮮人民會聯合會 振替奉天一六二六番 定價三十錢 送料二錢

▲新人間 新年號 發行所 京城府慶雲町八八 新人間社 振替京城一〇一八番 定價十錢

▲靑年太陽 正月號 發行所 東京市赤坂區表町三丁目二四 日本靑年文化協會 振替東京六三三六八番 定價十錢

▲새사람 第一輯 發行所 京城府觀里町一〇八 福音社 振替京城八〇七九番 定價二十錢送料共

▲實業時報 第六十六號 發行所 釜山府佐川町四三七 實業時報社 振替釜山三三五八〇番 定價一部五錢

▲國際觀光 一月號 發行所 鐵道省國際觀光局內 國際觀光協會 振替東京八五九七〇番 定價三十錢 送料六錢

▲酒 一月號 發行所 朝鮮總督府財務局稅務課分室內 朝鮮酒造協會 振替京城一八二九一番 定價五十錢

嶺美

平壤府西門通 諸機械工具商 朝鮮機械商會 電話二一九〇番 嶺美出張販賣所

嶺美 李炯立

平北嶺美 劉基漢

博川郡南嘉面事務所 職員一同

嶺美醫院 醫師 崔龍善

京義線嶺美驛前 貨物取扱委託業 ㊑共盛荷主運輸組 店主 邊榮道 朝鮮日報嶺美支局 支局長 邊榮道

中華料理 郡英樓 主 王佐周

南嘉面運渾洞 釀造業 劉基炯

任實

任實郡廳 任實產業團體 職員一同

任實警察署 警友會

任實郡 任實面事務所 靑雄面事務所 江津面事務所 德峙面事務所 新平面事務所 新德面事務所 雲岩面事務所 聖壽面事務所 職員一同

任實公立普通學校 任實公立尋常小學校 靑雄公立普通學校 芎漳公立普通學校 館村公立普通學校 雲岩公立普通學校 聖壽公立普通學校 新德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任實消防組 組頭 富永義男 副組頭 朴容碩

全北道會議員 嚴仁涉

全州地方專賣局 任實販賣所 佐藤重平

任實 金融組合 佐藤巽

館村公醫 山本猶一

任實邑內 朴庚洙

任實邑內 星泉酒造場 文仁根

館村 雲水酒造場 李相萬

靑雄酒造場 韓大錫

任實邑內 測量士 朴奉鎭

咸平

全南 咸平警察署

咸平鄕校 吳原居

咸平司法書士 聯合會

咸平郡內學校 職員一同

全南道會議員咸平 咸平倉庫金融株式會社 電話二一番 振替京城一四六七二番

咸平 金稅允

咸平 朝日洋服店 主 金相文

公州

反浦面鳳谷里 朴金培

公州反浦面 職員一同

反浦面鳳谷里 洪性烈

公州消防組 組頭 岩崎倉三郎 副組頭 藤澤英一 副組頭 孫千孫 第一部長 三戶正勤 小頭 金孝成 同 板倉精一 第二部長 小川常夫 小頭 白和鎭 同 末岡茂

忠南道會議員 沈載昱

松禾

松禾郡農會長 張基昌

松禾警察署 辻元與三治郎 外署員一同

松禾郡蓮井面花岩里 花岩鑛山事務所

松禾邑內 司法書士 鄭尙殷

松禾邑內 司法書士 魯相麟

丸洪貨物自動車部 主 洪錫斌

江東

江東邑內 江東光霽會

勝湖里金融組合 職員一同

平安南道勝湖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漣川

京元線漣川驛前 穀物委託販賣 權泰善

鐵道貨物運送取扱 ㊑共信運送部

京元線漣川驛前 朝鮮料理 鐵原館 電話一五番 館主 李春熙 同 劉錦桃 同 金菊姬 同 李花仙 同 崔錦玉 同 安香心 同 趙蓮月

高泉面職員一同

江東鄕校直員 尹完燮

平壤府鉤賓里 江東面 黃景鎭

平壤炭鑛線勝湖里驛前 今泉自動車部

勝湖里 久保瀧次

勝湖里 玉野合資會社

晩達面職員一同

晩達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晩達面長 洪東臣

高泉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勝湖郵便所長 水上五六

江東隣坡市京一醫院 金聖世

中和郡 楓洞面職員一同

勝湖里 趙將鎬

勝湖里黃金堂時計店 金昌萬

大同郡秋乙美面梨木里 崇仁學院 職員一同

勝湖里公立尋常高等小學校長 菊池贇

勝湖里警察官駐在所 職員一同

京元線漣川驛前 株式會社 興產社 電話漣川一五番

漣川驛前 株式會社 共榮社 電話漣川一二三番

漣川驛前 漣川釀造株式會社

漣川 植村五郎

漣川郡廳 職員一同

漣川 司法書士 土曜會

漣川公立普通學校長 吉田熙

漣川郡 繁榮會

漣川驛前 公醫 張圭珍

漣川通峴里 朴勝喆

漣川郵便所長 金謙洙

漣川驛前 漣川百貨店 路泰仁 取次電話漣川一八番

漣川 松浦製絲場

京元線漣川驛前 穀物貿易 綿紗布木 各種雜貨 金宇炯商店

漣川 平位信義

漣川驛前 雜貨商 洪

金東順

朴宜明商店

全谷驛前 和信連鎖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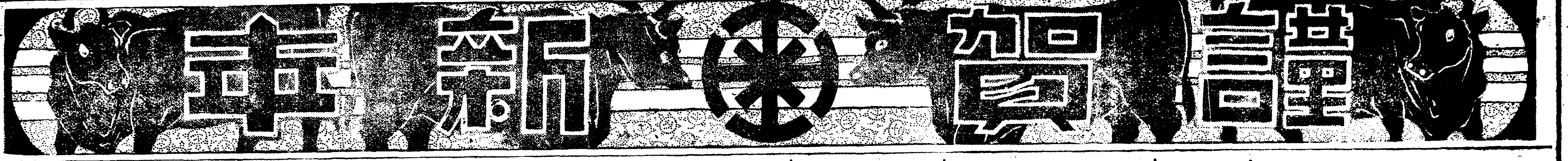
京元線全谷驛前 ㊄大成舍運送部

朝鮮京元線全谷 商品貿易 丸玉商店 李東雨

京元線全谷驛前 綿紗布木雜貨 黃範性商店

京元線全谷驛前 李鍾遠

漣川穀物商組合



宜川

宜川郡廳
宜川警察署
宜川邑
金融組合
金融組合職員一同
宜川郵便局
宜川稅務署

宜川邑 鑛業 崔泰日 電話五六番
年賀狀을此로代하오니諒解하심을伏望하나이다

朝鮮石油株式會社代理店 宜川商會 崔允涉 田徹敬

宜川本町 諸雜貨卸商 メリヤス直輸入 金成商會 電話一三四番
東興洋襪製造元

道會議員 李泳贊 旅行中欠禮

宜川本町 和洋雜貨都散賣 ビクター蓄音器及レコート 宜川百貨店 和信連鎖店 電話五三番

宜川本町 大衆商百貨店 東一商會 電話長一五二番 文興善

宜川邑本町 朝鮮總督府發行教科書指定販賣所 帝國海上火災保險株式會社代理店 大英書院 金禎河 電話一三〇番

京義線宜川驛前 製材木家材木 杭木各種ベニア 叺子木炭石灰 セメント鑛山用品一切販賣 日永商會 電話五六番

宜川邑 三共商會 三共商會煉瓦工場 電話六四番 私書函三六番

宜川邑中央通 農工商會 田文敎 電話一四七番

太陽商會宜川本店
太陽商會新義州支店
太陽商會江界駐在員

宜川酒造株式會社 電話一二番

ファンソウルト浮遊選鑛機械製造元 探鑛選鑛機械 機具設計製作專門 農工用電機機械器具 電氣機具、諸金物 商工鐵工所 宜川邑川南洞 電話一四五番 營業部 宜川邑本町 電話一二二番

宜川邑中央通 一二五木工所

三成鑛業所御用達 松成商會

宜川邑 鑛業 崔允涉 旅行中欠禮

宜川郡新府面安上洞 鑛業 朴福萬

宜川邑 金承吉

宜川邑 吳鉉埼

朝鮮平北宜川本町 綢緞布木貿易商 龍洋商會 主 魯允烈 電話六八番 電略(リウ)又ハ(ヨ)

宜川邑 仁濟病院 電話五九番

宜川邑郡廳通 宜川醫院 院長 郭麟模 電話一五四番 (此場所로移轉하엿음)

宜川邑本町 外科 産婦人科 內科 小兒科 X光線 皮膚科 泌尿科 附原齒科 三省醫院 曺仁奎 電話六二番

宜川本町 新案齒科醫院 朱道均 朴景雲

宜川驛前 壽世堂藥房

宜川邑 朝鮮高等料理 碧城樓 主 吳三女 電話一五七番

宜川邑 朝鮮高等料理 琴松館

宜川邑 朝鮮高等料理 吳贊瓘 電話三六番

宜川邑本町 平和食堂

宜川邑 米國싱거ー裁縫機械會社宜川分店 共同火災保險株式會社宜川代理店 愛國生命保險株式會社宜川代理店 金基輔 電話長一一六番 振替京城一九一〇八番
年始人事를此로써代하오니海諒하심을伏願합니다

信聖學校
宜川會館
宜川圖書縱覽所
宜川幼稚園
宜川中學講習所
宜川商業實修學校
保聖女學校
明信學校

宜川救世軍病院 金道興 電話一一七番

宜川驛前 各種賣藥衛生材料卸商 回春藥房 主任 仁

宜川邑 金容南外科醫院 電話五二番

宜川邑 鐵道貨物取扱 ㊀九一運送店 主任 金石洙 電話一〇八番

宜川邑本町 外科X光線科 王動醫院

京義線宜川驛前 鐵道指定加盟店 鐵道貨物取扱海陸運送業 ㊁九二合資運輸組 電話六二番 電略(マル二) 振替京城一四〇六九番

三省醫院齒科部 玉文振 電話六二番

京義線宜川驛前 岸本組運送部 電話三九番 電略(キ)又ハ(キシ)

京義線宜川本町 李京彬藥房 電略(ヲ)又ハ(ケ) 電話三四番

大正生命保險株式會社 日本教育生命保險株式會社 平北出張所長 他山石

京義線東林驛前 和醫院 金栽衡

金基潤

宜川邑川南洞 南浦旅館

宜川邑川北洞 大宜麵店 金日鉉 電話四三番

平北宜川邑本町 鮮滿測量社

土木請負業 白瑞鎬 電話一六五番

宜川邑 鮮滿交通株式會社 宜川營業所 主任

宜川邑 道會議員 吳弼殷

邑會議員 洪致業

宜川金融組合長 吳震泰

宜川邑會議員 金明鉉

宜川邑 鑛業 申基周

鑛業 田文信

宜川邑 金元澤

宜川邑 李鳳來

宜川郡水淸面 李益興

宜川邑 朴銀玉 電話一一一番

郡山面 金潤泰

宜川驛前 朝鮮運送會社代行營業所 代表者 白垣善四郎 電話三三番

宜川邑 金相鳳

宜川邑 申應寬

京義線宜川驛前 ㊄丸井運送店

宜川邑本町 最新流行高級洋服製造 圓一洋服店

宜川邑中央通 平壤洋靴店 電話一一六番

宜川印刷所 鄭斗成 電話一〇四番

宜川邑中央通 活版石版 和洋帳簿 各種紙類 永信社 電話五四番 電略(中)又ハ(エイ) 振替京城六八六四番

京義線宜川中央通 最新男女洋服調進 東亞洋服店

宜川邑 鮮一洋行 洋服部

朝鮮平北宜川邑內 各種時計 高級眼鏡 萬年筆及理髮器具附屬品販賣 大川時計店

宜川邑 宜川時計店 姜道一

平北宜川邑川北洞 金銀細工 金銀分析 宜川金銀商會 李金鉉

宜川邑川北洞玉石里 宜川農民共生組合

宜川邑 (喪中失禮) 森盛商會 李錫祚 電話一三七番

宜川邑本町通 綢緞布木 第一商會 李進建

宜川邑本町 田中島商店 李京 電話一九番

宜川邑本町 李技實商店 製服部

宜川邑川南洞 製物貿易 各種肥料 大陸商會 金國彬 電話一一九番

宜川本町 食料雜貨 光信商店 鄭君善 電話一〇三番

宜川邑本町 亞細亞運動具店 電話一七三番

平北宜川中央通 天和社ペンキ店 主 張天鳳

宜川 張一春

平北宜川本町 綢緞布木 大昌商會 康日鉉

平北宜川邑本町 綿布商 海東商會 長電話一四二番

宜川邑本町 自轉車 軍手 タオル 大東商會 電話一〇六三番

宜川邑內 盧德商會 電話一五八番

宜川邑本町 萬貨商店

宜川邑 源興商會 電話三九番

平北宜川邑川北洞 海陸物産貿易委託 金德俊商店 電話四三番 電略(トク)又ハ(キ)

宜川 平安鐵工所 電話一四四番

宜川邑 和鮮木工所 朴熙純

水淸面 日昇商會

朝鮮平安北道宜川驛前 製綿 滿洲粟 玉信商會 電話一六六番 電略(ミ)又ハ(ミシン) 受信略センセンミシンセウカイ

宜川邑 黃海食道園 電話一五五番

宜川邑 松竹食堂 電話一四六番

宜川邑 第一旅館 平安旅館 電話一七番

平北宜川邑川南洞 大旅館 電話一二五番

宜川驛前 正和旅館 電話一六二番

宜川邑 天道教宜川宗理院

朝鮮平北宜川 各種自轉車 觀輪社

京義線宜川驛前 精米業 穀物及委託賣買 南山精米所 電話一三九番

片倉殖産株式會社煉炭特約店 平安木炭商會

朝鮮平北宜川邑中央通 金星堂藥房 電略(ホシ)又ハ(ヨ)

宜川邑內 萬壽局 李德見

宜川邑內 泰和局

宜川邑 朝日藥房

京義線路下驛前 三合精米所 路下文店

京義線路下驛前 和信連鎖店 田昌露

深川面長 桂動炳

茂山

咸北茂山江岸 金基德商店

茂山製材所

咸北茂山郡三長市 木材業 穀物業 請負業 陸一商會 振替口座京城二五五六一番 出張所 龍井、三社、茂山、會寧

茂山郡職員一同

茂山面職員一同

茂山邑內 尹錫弼

本社 京城府岡崎町七ノ二 出張所 東京、大阪、茂山、三長 事業地 咸北茂山郡三長面三社面 朝鮮開拓製糖株式會社

咸北茂山邑 楊川醫院

咸北茂山邑 茂山製材所配給所

咸北茂山郡三長市 岩村組出張所 金鼎乃

茂山郡新站驛前 木材店 楊春先

慶州

慶州邑 慶州釀造株式會社

慶北甘浦 都一精米所

慶北安康 金在文商店

慶州稅務署 職員一同

金丈酒造場

慶州商工會

李埰雨

李錫雨

金在典

慶州邑長 井上茂

慶州警察署 職員一同

株式會社 慶尙合同銀行 慶州支店

慶州商業組合長代理 徐海錫

慶州穀物組合

慶州和信連鎖店 中央堂 王興洛

慶州飲食店組合 崔述龍

慶州劵番 電話四四番

朝鮮料理 茂悅閣 電話三三番

慶州 朝鮮料理 鷄林食道園

慶州 料理 明月館

慶州 安東旅館 白安東

慶州邑 シンガーミシン會社 主任 黃元出

慶州外東面 入室酒造場 李泰雨

甘浦印刷所 主 許壽元

慶北甘浦 甘浦酒造株式會社

慶北甘浦港 公醫 林慶澤

慶北甘浦 自動車部 主 尹滿孝

慶北甘浦港 司法書士 朴南鎭

甘浦漁業組合理事 桃川業雄 良洞公普校長 小村春二

三共商會

鄭松嘉商店

長春館

金在曉

慶北安康 釀造株式會社

李錫祀

李源稷

安康公立普通學校

慶北安康 朴泰永

慶北安康 日浦廣治

慶北安康 鄭鎭俱商店

慶北安康公醫 具秉助

慶州郡江西面長 黃修光

浦項仲町 竹原商店 電話二二六番

慶北安康楊月 李泊鍾

慶北安康 慶州旅館

安康金融組合理事 李相珪

慶北安康 綢緞布木 孫永基商店

慶北安康 綢緞布木 安興商店

慶北安康 前田利治

安康郵便所長 持建勇助

慶北安康 大昌商店

安康驛前 鮮一運送店

慶州郡良洞 李錫海

慶北安康 亞細亞洋服店

慶北安康 水利組合理事 栗本玉次郎

慶州郡江東面 多山商店

慶北安康 東信商店

慶州郡良洞 李錫文

慶北安康 金七錫商店

慶北安康 綢緞布木 李有式商店

慶北安康 東成旅館

江西 鄭柄璨

忠南道內土木工費 六十餘萬圓容認

港灣改修、道路、下水工事等等 比前年豫算倍額增加

【大田】총독부에서 대체로결정되야 충남도에 내시된 소화십이년도 토목사업비는 예상이외로 다액에 달하야 충남도에서는 일층기염을 토하고 잇다 그내용을 보건대 중소하천개수이외에 대전도로하수(大田道路下水)공사비 륙만원(삼개년계획)과 장항(長項)상수도 공사구만원(이개년계획) 장항만수축비 오십만원(삼개년계획) 강경(江景)하수구공사 삼만칠천원(삼개년계획) 합계 륙십팔만칠천원의 국고보조가 용인되얏다 소화십일년도에 비하면 실로 삼십륙만칠천원의 증가를 보게되얏다는바 이것으로 실업로동자를 구제할수잇슬뿐만 아니라 수만의 로동자를 구제하야 만흔 도움이되리라고한다

教育家金亨燮氏 不忘碑를建立

【松汀】전남광산군대촌면송정리(光山郡大村面松汀里)김형섭(金亨燮)씨는 원래부터 공공사업에 류의하여오든바 금번에대촌면협의에 무산아동을 수용할 교육기관이 업슴을 유감으로 역이여 그학원을 신설하고저 대지(垈地)천여평과 현금이천여원을 희사하야 교사를 신축하여 불원간에 배움에주린 무산아동을 수용하리라하며 금후 십년간의 유지비 역시 씨가책임을지겟다고 언명하엿다한다 이에 일반은 씨의독지를 길게기념하기위하야 불망비까지 세워두고 진정키로 준비중이라는데 사건의귀결은 자못주목된다고한다

大寒日錦江에서 氷上競技大會 公州支局後援

【公州】충남공주금강(錦江)결빙기에 빙상경기대회가 업섯든것을 유감으로생각하야 공주화신련쇄점공영회(和信連鎖店共榮會)에서 본보공주지국후원하에 공주군내 청년회도의 체육장려를목적으로 오는십칠일 대한(大寒)의 결빙한금강(錦江)에서 빙상경기대회를 개최한다는데 대회규정과상품을 준비중으로 추후발표할터이라한다

警官으로假裝코 行人을襲擊奪金

翌日固城署員이逮捕

【固城】지난오일오전한시경 경남고성군 마암면화산리(固城郡馬岩面禾山里)로동자 배경진(裵京鎭)(三?)이가 동면록명리(鹿鳴里)에잇는 친형 배사진(裵士鎭)의집을 차저가는도중 동군회화면배둔리(會華面背屯里)공동묘지 부근을 통과할지음 뒤에서 자전거를타고 오든괴한이 자긔는 경관인데 신체검사를 하겟다고 말한후 신체검사를한후 소지한 현금삼원을 보고 이것은절취한 금전이니 주재소로가티 가자고 하므로 반항하엿던바 포승가튼 노끈으로 손목을 묵근후 자전차를타고 도주하엿다는데 이급보를접한 고성경찰서에서는 서원을 총동원하야 범인체포에활동한결과 그익일인 륙일오전팔시경 고성군회화면어신리(固城郡會華面語新里) 김도경(金道敬)의장남 무직 김인규(金寅奎)(二?)인것이 판명되여 곳 체포하여다가 엄중히 취조하엿던바 범죄일체를 자백하엿다한다

白川温泉에서 青春男女情死

【白川】지난륙일 오후열두시쯤 백천온천(白川温泉) 일본내지인 남녀두명이 청산가리(青酸加里)를 먹고 정사하엿다는데 그들은 주세면도회사원 동내종일(宮內宗一)(二?)과 해주본정(海州本町)송미인화자(松尾仁花子)(二?)로 피차간정의가 깁허오든바 세상을 마지하기위하야 백천온천에와서 묵고잇다가 송미의집안에서 리해치못함을 비관하든 남어지에 그처럼 유서한장을남기고 정사하기에 이른것이라한다

潭陽線鐵道分岐點 南原驛誘致運動

市民大會開催決議

【南原】남원발전상 생명선인담양선철도분기점(潭陽線鐵道分岐點)문제로 남원시민은 지난오일오후네시부터 남원극장(南原劇場)에서 시민대회를열고 만장일치로 담양선분기점은 남원역(南原驛)으로 유치운동할것을 가결한후 그방법은 남원읍발공직자회합에 일임하기로 하엿다한다 그리고 즉석에서 세야원조(細野元助)씨로부터 현금오백원을 자진하야 운동비용으로 긔부하엿고 도입바시민도 호응하야 운동비용을 긔부하기로 되엿는데 이 운동의 장래가 주목된다 이분기점(分岐店)문제로 말하면 금년부터 철도당국에서 담양선(潭陽線)공사 착수할것을 결정하고 멀지안하서 그실측에착수하리라한다 그런데 이선은 두갈래로 난호일터로 하나는순창(淳昌)서 금지(金池)역으로 또하나는 남원(南原)으로 각각가게되는데 순창서 남원으로 직통하는데는 비홍치(飛鴻峙)라는 산이 가로노혀서 약오십만원의 공사비가 더든다하야 건설의편의상 금지(金池)역으로 정할념려가 업지안타해서 운동을 시작하게된것이라한다

◇…寫眞 新築落成된馬山正武舘과責任者 朴三祚君

作料引上問題로 作人不平陳情

【黎野】황해도해주군 고산면석담리(海州郡高山面石潭里)조창구(趙昌九) 박덕수(朴德壽) 조춘구(趙春九)등 이십여명은 이전부터 취야수리조합(翠野水利組合)의 홍수지(洪水地)를 수확의 삼할작료(作料)로 소작하여오든바 지난해의작농은 흉、냉해로 인하야 농사도되지못함에 불구하고 조합에서는 지난달이십구일에 이르러 돌연 소작료를 삼분오리증가하여 삼할삼분오리로 과도한 변보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엿다하야 그고지서를받은 전긔이십여 소작인들은 너무나억울하다고 방금

老母를虐待한다고 己妻를殺害暗葬

畢竟犯行綻露되여警察이取調 盲目的孝誠이나은犯罪

【釜山】친모학대한다고 아우와 공모하야 처를살해한후 자살을 가장하야 매장하얏다가 탈로된 사건이잇다 경남거창군 웅양면 죽림리(居昌郡熊陽面竹林里)농업 신종두(愼宗斗)(二?)는 지난십이월삼십일 친제 신종욱(愼宗郁)(?)과 의론한후 그의안해 리전숙(李全淑)을 꼬여서 약이천가량이 되는 산곡(山谷)에 다리고가서 미리 준비하야두엇던 노끈으로 목을졸나 살해한후 끌고서 도라와서 다리를 묵근후 그곳에 달아매고 단이 절로나가서 전긔장소에서 자살하엿다고 허위신고를하야 매장하얏는데 그후여러가지 풍문이 경찰서에들리게되여서 지난 일오경 거창경찰서 사법주임이 다리고 매장한 묘를 발굴하야 해부한결과 타살로 판명되엿스므로 곳 남편인 전긔 신종두를 인치하야다가 엄중히 문초한결과 자긔 아우와 공모하야 살해한것을 자백하엿다는데 그 원인은 지금으로부터 오년전에 결혼하얏는데 자긔처가 항상 자긔친모인 강씨(姜氏)를 학대하므로 그와가티 살해한것이라한다

三千圓大金詐取한 詐欺賭博團九名

◇……馬山署員에게一網打盡 料亭에서豪遊타發見

【馬山】신년벽두에 대사긔도박단검거——지난사일밤 열두시경에 마산서 사법계 전、송촌(田、松村)형사가 구마산수정(壽町) 일선정(日鮮亭)유곽압길을 순회할지음 마침 본적을 사천군 곤양면 검정리(泗川郡昆陽面儉亭里)에둔 사기전과이범 오상숙(吳相淑)(三?)과 본적 진주군 대평면 내촌리(晉州郡大坪面內村里)사긔전과이범 강남아(姜南兒)(?)와 고성군 영오면 오동리(固城郡永吾面五東里)서웅근(徐應根)(?)외 전과자수명이 둘러하야잇슴을 수상이 생각하고 곳 그들 구명을 검거하야 엄중히 취조를 개시한결과 의외에도 그들 구명이 결탁공모하야 지난달 십오일경에 진주읍내에잇는 부호 박태성(朴太成)(假名)을 유인하야 부산 초량정 모료리점에서 사긔도박으로 삼천오백사십원을 빼아서가지고 도주하여온 사실을 자백하엿스므로 방금 엄중취조중이라하며 여죄도 상당히 만흔 모양인데 그중 두명은 도주하엿스므로 목하 수사중이라한다

女性同友會主催 編物講習盛況

【鎭南浦】진남포 녀성 동우회(女性同友會)주최 본보진남포지국 후원의 녀자 편물 강습회(編物講習會)는 예정과 가치 지난십이월 이십구일로 일주일시일까지 일주일동안 파룡흥업회사(巴龍興業會社)이층에서 개최되여 강사홍선창 김선옥 양영실(洪善昌、金善玉、楊英實)세분의 지도아래 강습생 이십여명이 매일밤 재미롭게강습을 마치엿다

正武舘의첫事業 李奎煥歡迎拳鬪

來十日舊馬山共樂舘에서 本報馬山支局後援

【馬山】체육마산의 정무관(正武舘)이라면 그럼사적 존재를 부인할수업는터로 한동안 파란중첩한판을 겨거왓스나 책임자 박삼조(朴三祚)군의 열렬한 정성과 꾸준한 노력으로인하야 체육계의 원로격인 마산정무관은 갱생의서광이 빗나게되엇스니 구마산오동동(午東洞)요지에 두렷한 최신식 양옥의어엿한자태는 과연정무관(正武舘)의위업이다 건평사십사평에다가 총공비이천오백원의 경비로서 남조선 초유의체육관(體育舘)이며 마산체육계의 전당(殿堂)이다 정무관내에는 유도부(柔道部) 권투부(拳鬪部) 탁구부(卓球部) 검도부(劍道部)의 약오십여명의 젊은장정들이 신축락성식을 긔약하고 정무관 권투부(拳鬪部)에서 신축의첫사업으로 오는십일 구마산공락관(共樂舘)에서 정무관주최와 본보마산지국 후원으로 권투조선의 화형(花形)인 리규환(李奎煥)군의 환영권투회를 개최키로되엿는데 마산(馬山)통영(統營)의 대항전을 비롯하야 전조선적권투의 맹장들을 동시초빙하야 마산정무관의 첫사업인동시에 국제선수 리규

卅六萬圓으로 道廳舍新築 基地를物色

【平壤】평안남도청사는 명년도부터 국고보조 이십륙만원 도비십만원 합계 삼십륙만원으로 신축하기로 결정되엿는데 방금 문제가되여잇는것은 기지(基地)로서 현재의평양중학(平中)놉흔곳에 이전하고 거기에도청을신축할의향도 잇지안엇섯스나 그것은 예산이맛지안코 신리(新里)방면에 기지를구하는데 토지를사면 신축비가 부족하므로 기지도사고 신축도할수잇는 장소를구하고저 머리를알코잇는 중이라한다

三郡教員講習 八日溫陽에서

【牙山】충남례산、아산、천안(禮山、牙山、天安)삼개군내의 교원 강습회(教員講習會)를 오는팔일부터 사일간 온양보통학교 학교강당에서 개최키로되엿다는데 참가할교원이 이백여명에 달하리라한다

아우집에放火코 묘집에서窃盜

【南海】경남남해군 남해읍내 한씨 지물상(紙物商)에서 화재가 생긴것은 긔보하얏거니와 또 그 시각(時刻)인 동일오후칠시경 남해읍내 한씨(韓氏)의 형 피해자인 한씨 경영의 남해외 읍(南海邑)에서는 현금이백사원이든 금고를일허버린 사건이 생겻는데 동사입 남해읍내남변동(南邊洞)에사는 장순조(張順祚)와 그의 안해 김달막(金達莫)이 혐의자로 검거되얏는데 그여자는 그날밤 남해의 원외 금고를 절도할목적으로 그 아우(弟)되는 한씨지물상에 방화를하고 그의원가족이 전부 불끄러간틈을타서 그와가튼 절도행위를 하얏다는데 그동긔는 생활난과 그여자의병적행위라는바 증거로는 동범인을검속하기전에 그압집변소에서 빈금고를찻고 동범인의집 부억천정에서 현금이백사원을 파내엿다고한다

숯불에中毒되여 두老人生命危篤

【公州】충남공주군계룡면 갑사(公州郡鷄龍面甲寺)의 료(寮)리호연(李浩然)과 리호허(李浩虛)두로인은 지난이십구일오전 오시경에 밤나무숯으로 불을피고 잠자다가 까스중독으로 생명이위독하게 되엇슴을 그곳경천의 팔성의원의사가 응급치료하야 생명은 구조되엇는데 밤나무숯불까스중독을 주의하여야되겟다고한다

全南穀物協會 來八日總會開催

【光州】전라남도곡물협회총회는 오는팔일 오후한시부터 전남도청내에서 개최하게 되엿다는바 토의사항은 다음과갓다한다

一、檢査玄米重量에關한件
一、穀物大會役員及其他에關한件
一、評議員改選에關한件
一、顧問推薦件
一、相談役推薦件
一、昭和九、十年度 丸木穀物協會 收入支出決算에關한件

盲啞學院建築에 盲人이爭先義捐

—벌서七百圓의多額—

—寡婦의서름은— 同伴寡婦가안다

【平壤】평양부내경창리(景昌里)마포긔념관(馬布記念舘)에본부를둔 평양맹아학원(平壤盲啞學院)에서는 원사(院舍)를 건축하라고계획을세웟는데 과부의 서러운사정은동무과부가 안다는이야기와가티 이소식을드른 평양부내에거주하면서 안마업을하고잇는맹인(盲人)들이 압흘다토아 맹아학원건축에대한 의연을하여 발서칠백원에 달하여 건축공사의십분의일을 만드럿다 세상에서 가장처참하고 불우한 생활을하는 맹인과벙어리의 배움의터이며 안식처인 맹아학원의 건축비를 각방면에서 보조하여 급속히신축을바라거니와 압도못보면서 안마업을하여 호구책을 유지해가는 맹인들이 정성의연하여 회원의완성을긔약한다는 이가륵한행동에 대해서 만당의경의를표하는터이다 이제 의연자의방명을 적으면 다음과갓다

◇盲啞學院建築義捐者芳名 ▲鄭王出 李龍雲 尹學培 各十圓式 ▲金明玉 金信煥 表仁澤 鄭仁寬 各卄圓式 ▲洪在鉉 洪心誠 各卅圓式 ▲金壽東 康昌福 各五十圓式 ▲田光明 六十圓 ▲李鳳梧 七十圓 ▲吳鵬浚 百圓 ▲高翁洞 二百圓

地方人事

▲韓讚英氏(綾州專賣局販賣所長)海南販賣所轉勤人事次本報綾州支局來訪
▲鄭鎔基氏(金海稅務署長)新任人事次本報金海支局來訪
▲金錫祚氏(前湖南銀行木浦支店支配人代理)本店轉任人事次本報木浦支局來訪
▲許國春氏 同上
▲朴五基君(守山支局員兼記者)과 鄭劍南孃과의 結婚式을 一月十日午前十一時 昌原郡東面龍岡里 新郞自宅에서擧行

라디오

八日(金曜)

◇午後六時 (大) 幼兒童話 四つの菓子 オハナシ、ワラブ
◇同六時二五分 兒童講演
◇同六時三〇分 講演 [illegible] 金晉燮
◇同七時三〇分 新年民謠(六) 金若蘭
◇同八時 (平)西道歌謠 金碧桃
◇同八時三〇分 歌劇 一、[illegible] 二、白鳥鐘 崔山月 李月色 鄭点紅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九時 (東)管絃樂 未完成交響曲……シューベルト作曲 指揮 아옷구스트 日本放送交響樂團

第二放送

◇午後六時 (大)童話
◇六時二五分 (東)講演
◇同七時三〇分 (講演)
◇同八時 (大)浪花節
◇同八時三五 (東)新內
◇同九時 (東)管絃樂

長篇小說 그의自叙傳【17】

長白山人作 熊超畵

어린적 (十七)

「저녁 잡수섯소?」

「아니」

「시장하시겟구려」

「아까는 좀 허기가 나더니 입옴이네 집에서 술을 한잔 먹고, 빈대떡을 줏어먹엇더니 괜찬어.」

아버지는 취하지는 아니하엿다. 근래에는, 내가 이집을 온 때부터는 아버지가 취하는양을 보지못햇다. 내가 온것이 걱정이 되어서 그러키도 하려니와 또 술을 자시랴야 자실돈도 없는것이다. 인제야 누가 우리 아버지께 외상을 주며 돈한 푼을 꾸어는 주랴? 꿀데는 다 꾸고 질데는 다 진 아버지다. 나는 아버지께 그 좋아하는 술을 권하고 대접해보앗으면 하고 여러번 생각한것을 기억한다. 더구나 내 병이 점점더해저서 오늘 내일하고 죽을지 갈을 찾을때에 약값은 없어, 양식은 떨어저, 어머니 어떻게 사느냐고 어린것들을 한팔에 하나씩을 껴안고 울어, 할 때에 아버지는 밖에 놓엿던 칼을 들어서 목을 따라고 하는것을 죽어가던 내가 무슨 기운이 잇엇던지 뛰어일어나서 붙들고 울고난 뒤에는 나는 어머니더러 밥주발을 갓다주고라도 아버지 술이나 좀 사다드리라고 떼를 쓴일도 잇엇다. 아버지도 울고 어머니도 울엇다. 그런데 오늘도 어찌해서 취하지를 아니햇을까.

아버지는 상을 받고 두어술 밥을 뜨더니 속이 편치않다고 상을 물렷다. 그러고는 뒤깐으로 갓다. 나는 웬일인지 가슴이 떨려 내려앉어서 아버지를 따라 갓다. 설사다! 나는 발을 동동 구르고싶엇다.

그해는 괴질이 사람을 칠 던 해다. 그러나 팔월에 들어서면서는 추풍이 나서 그럽지 뜸햇다. 그런데도 나는 아버지의 설사가 치명적인것을 직각하엿다.

뒷간에서 돌아온 아버지 곁에 나는 떨고 서잇엇다. 전과 같이 나는 아버지와 한방에서 자리에 누엇다. 나는 얼마스동안 아버지의 동정을 근심하엿으나 별일이 없는것을 보고는 잠이 들엇다. 얼마나 잣는지 모르거니와 내가 놀라서 깨어난 때에는 어머니는 피마주기름을 입에 물어서 아버지의 항문으로 아주까리기름을 어붓고잇고 아버지는 괴로워서 몸을 비비틀고잇엇다. 내 예감대로 아버지의 병은 호열자엿던것이다.

나는 일어나앉어서 이 광경을 보고는 「천우신조하오, 천우신조하오」하고 수없이 부르며 울엇다. 아버지의 파랗게 질린 얼굴을 보고는 또 울고 또 울엇다.

해가 떠오를 때에는 벌서 아버지는 눈이 끝아 돌리지를 못하고 혀가 굳어서 어음이 분명치못하엿다. 그리고 두 다리와 손이 죽은 사람의 살모양으로 떠렇게 되엇다.

어머니는 의원을 청하려갓다고 어디로가고 어린애들은 안사방에 소리없이 잇고 나만 아버지 곁에서 울엇다.

아버지는 나를 보고 무슨 말슴을 하는 모양이나 어음이 분명치못해서 무슨뜻인지 알수가 없엇다. 그것이 설어서 나도 또 울엇다.

「수경아 수경아」

하는 소리만은 분명히 알아들을수가 잇엇다. 그리고 여러번 여러번 또 하고 또 한 결과로 아버지 말 뜻이

「내가 죽어야 네가 잘 돼」

하는 말인줄을 알아들엇다. 그리고는 나는 아버지의 싸늘한 손을 가슴에 안고 울엇다. 아버지가 돌아가면 나도 딸아죽을것만 같앗다.

아침 일직 나간 어머니가 점심 때나 되어서야 곽향정기산 두첩과 무슨 잿빛나는 가루약 한 봉지를 가지고 돌아왓다.

「내일이 추석이라고 누가 오려야징. 박의원두, 이의원두 다 못 오겟다구」

어머니는 원망스럽게 말하고는 그 가루약을 아버지게 메기고 첩약을 다리러 법으로나갓다.

가루약을 먹인지 얼마 아니하야 몸의 검은 빛은 가슴까지 올라가고 아버지는 아주 정신을 잃어버리는것 같앗다.

나는 김의원이나 강의원을 불러온다고 뛰어나섯다. 이날도 때때로 소내기가 쏟아젓다. 김의원이나 강의원은 다 아버지의 친한 친구엿다. 그러나 그들은 다,

「송진을 먹여랑. 내일이 추석이니까 나는 못가.」

「머루넝쿨을 대려먹여라, 내가 가도 별수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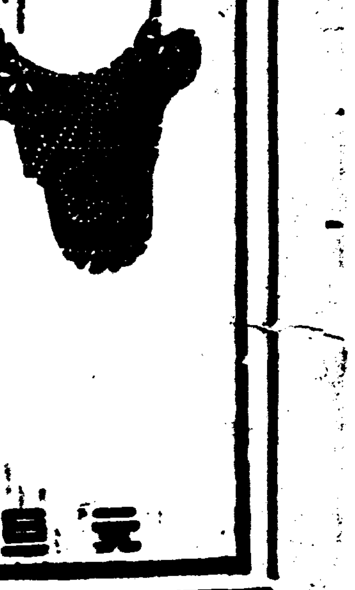
이렇게 말하고 내가 아모리 울고 졸라도 와주지 아니하엿다.

馬山

李奎煥歡迎拳鬪

▲時日 一月十日
▲場所 舊馬山共樂舘
◇主催 馬山正武舘
◇後援 朝鮮日報馬山支局

賀正



元旦

三千浦

慶南三千浦邑 株式會社 和信連鎖店文華堂 主 金鍾烈 電話四六番

慶南三千浦邑西部里 朝鮮料理 三榮館

慶南三千浦邑市場通 綿布商 釜山商會 主 崔基英

三千浦邑事務所 邑長 華樹寬齊 副邑長 高斑柱 職員一同

慶南三千浦邑 銘酒 三千娘 釀造元 大野酒造部

慶南三千浦邑 三千浦金融組合 電話一六番

慶南三千浦邑 內外貿易 海陸物産 委託販賣 株式會社 河信商事 三千浦支店 支店長 河振 電話四三番

慶南三千浦邑 株式會社 三千浦釀造會社 電話三六番

慶南三千浦邑 石拔白米 內外貿易 三千浦貿易株式會社 電話八番

慶南三千浦邑 合名會社 三千浦精米所 社長 山本增吉 支配人 孫紫燮 電話一四番

慶南三千浦邑 三千浦漁業組合 電話四〇番

慶南三千浦邑 泗川麯子製造株式會社 電話二二番 振替釜山六一四六番

慶南三千浦邑新島里 漁業相助會理事 張注泳

固城郡下二面 面長 崔載泥

南海郡昌善面東大里 金錫汶

三千浦金融組合昌善支所 職員一同

慶南三千浦邑 活版 銅版 各種印刷 諸紙販賣 三省印刷社 金三洙

三千浦邑議員 孫仁守 千炳植 金東先 許時彦 余炳華 劉相載

慶南三千浦邑 新樹島里 朴南祚 / 東錦里 金昌基 / 竹林里 三木吏壯 / 香村里 孫相範 / 宮田里 尹永哲 / 龍里 李世鎬

下二面協議員 朴相潤 同 朴應實 同 朴貞教 同 崔斗鎬 同 崔洛晥 同 姜漢中 同 金泰守

慶南三千浦邑 新興洋服店 裵章榮 / 三星洋服店 金洪碩 / 巴里洋服店 朴萬榮

慶南三千浦邑 三千浦洋靴店 安性祚 / 永昌洋靴店 金昌坤

慶南三千浦邑 南海旅館 主 金南斗 / 三和旅館 主 張[illegible]

慶南三千浦邑 三〇〇香化粧料製造元 三成工業株式會社

慶南三千浦邑 三千浦俱樂部 金元京

慶南三千浦邑 馬山商會 李圭善

慶南三千浦邑 嶺南商會

慶南三千浦邑 肥料 穀類 雜貨其他 海陸物産 委託販賣 三鴻商會

南海産業組合昌善支所 朴鍾綸 張在宗 姜鎬翼

慶南三千浦邑 各種料理 商 鄭柄湜商店

慶南三千浦邑 沖野屋旅館 料理部

慶南三千浦邑 二宮齒科醫院 院長 二宮欣祚

慶南三千浦邑 張鷹相

三千浦郵便所 所長 龜岡一

泗陽面事務所 面長 文泰洪 職員一同

泗川郡南陽面松浦里 金錫均

慶南三千浦邑 活版印刷 各種印刷 主 趙看布

三千浦泰德醫院 公醫 梁海昌 電話四五番

慶南三千浦邑 製材 建築材料 三千浦材木店 朴大甲

慶南三千浦邑 綢緞布木 各種雜貨商 大阪商會

慶南三千浦邑 綢緞 布木 徐元甲商店 電話一〇番

慶南三千浦邑 外科專門 濟衆醫院 院長 梁在穆

慶南三千浦邑 石油一切 機械附屬品 其他雜貨 藤田石油店 千德信

慶南三千浦邑 株式 商業銀行 三千浦支店

慶南三千浦邑 三千浦製鋼工場 崔[illegible]

慶南三千浦邑 孫南常

慶南三千浦邑 和洋料理 南陽食堂 電話四一番

慶南三千浦邑 和洋雜貨 各種食料品 三南商會

慶南三千浦邑 ゴム靴 運動具 晋州ゴム商組 主 李相[illegible]

慶南三千浦 三千浦理髮組合

慶南三千浦邑 各種蓄音機 時計販賣業 三一堂 主 金贊玉

慶南三千浦邑 太陽寫眞館 主 尹鳳鉉

慶南三千浦邑 司法書士 劉相斗

南海漁業組合昌善支所 支所長 梁在靈

南海郡昌善面 東洋內科醫院 院長 [illegible]

三千浦邑新島里 金正甲

慶南三千浦邑 シンガーミシン會社 三千浦分店 主任 韓萬祚

慶南三千浦邑 金錫範

慶南三千浦邑 富春堂藥房 主 [illegible]正守

慶南三千浦邑 雜貨商 高基龍商店 電話三七番

慶南三千浦邑 張志明

開城

開城府西本町通 開城農具商會 電話四三三番

順安

順安親交會

平原郡順安面新井里一二八ノ一 安吉祚

京義線順安驛前 中華料理 明德館

永登浦

永登浦料理屋飲食店組合

求禮

朝鮮日報社求禮支局 局長 金鍾炳 同 尹榮奎 支局長 宣太燮 總務 金琫鎭 記者 金度善

光州府大正町一〇九 金性權

經濟一夕話

思惑的輸入防止코저 外國爲替管理法强化

× 政府는八日附로 爲替管理法에 基하야 大藏省令을 發表하고 施行한바 그內容은 다음과갓다。

× 첫재로 外國爲替管理法의 施行은 昭和八年三月二十九日法律第二十八號로써 公布하고 五月一日부터 施行되엇스로 朝鮮、台灣及樺太에도 施行되엇스며 外國爲替管理法은 全文大藏省令第七號外國爲替管理法에 基한 命令의件에 依하야 同法의 取締事項의 範圍方法을 限定하고 同時에 省令輸入者로써 同施行手續을 制定公布한것이다。

大藏大臣에게 廣汎한 取締權限을 與하고 그 委任命令의 發布에 依하야 取締할수잇게한것이 特色인바 爲替管理法에서 禁止 又는 制限할수잇는 取引 又는 行爲의範圍는

一、外國正貨 又는 外國爲替의 取得 又는 處分(賣買交換擔保等을 含함)
二、通貨、金地金、金의合金 或은 金을 主材料로하는 物의輸出 又는 金貨幣의 鎔潰 又는 毀損
三、外國에 對한 送金으로서 前二條以外의方法에依한것
四、逆爲替或은 取立爲替(外國에서한 委任에 基하야 日本內에서 하는支拂)
五、外國爲替市場의決定
六、外國通貨로써 表示하는 證券、債權 又는 債務의 取得 又는 處分
七、信用狀의 發行 又는 取得
八、外國居住者에게 信用을 與하는行爲
九、證券의 輸出 又는 輸入
十、貨物의 全部 又는 一部에 對하야 外國爲替를 取得지안는 貨物의 輸出—第三者를 爲한 委任命令에 依하야 取締하는나 以上에對한 取締의 實行은 委任命令에 依하야 取締하는 것인데 委任命令에 依하야 爲替取引에 關하야 許可를받은 銀行으로부터 每日報告케하고 報告 又는 帳簿其他書類의 提出 銀行에 對하야 이것을 許可하는 外國爲替銀行으로하야 또施行에關한 重要事項은 關係大臣—卽 大藏大臣의 許可를 要하기로 되어잇다

그리고 이번에 大藏省令으로 施行된것은 昭和八年四月二十六日 大藏省令第七號(外國爲替管理法에 基한 命令의 件)에 있어서 第四條 前條의 規定에 不拘코 大藏大臣의 許可를 要치안는다고 第一項 日本으로부터의 貨物輸出 又는 日本에의 貨物輸入을 爲하야 必要할時 라는 除外例를 이번省令으로 輸入貨物代金決濟를 爲한 爲替取引及 信用狀取得은 原則으로서 許可를 要하고 無爲替輸出代金에 對하야도 許可를 要하기로 公布施行된것이다。

그러면 왜이러케 施行하얏느냐하면 昨年의 對外貿易의 統計에 依하면 十二月二十五日까지의 外國貿易은 日本內地、朝鮮、臺灣을 合하야 輸出二十七億二千百萬圓 輸入二十八億五千五百萬圓으로 入超一億三千四百萬圓을 算하고 이것을 前年同期의 入超一千九百萬圓에 比하면 一億一千五百萬圓의 逆勢로서 輸出이 六分八厘增、輸入이 一割一分二厘增인것이 注意되는바이나 今年의 貿易前途는 輸出業不許이나 加工輸出品原料가 激增하야 增加되고 目下情勢로는 鐵材其他重工業材料輸入도 增加되겟슴으로 輸入激增이 豫想되는 實情이다。

그런데다가 貿易商들이 將來爲替의 思惑輸入(所謂思惑輸入、見越輸入)하는것이 만흠으로써 이것이 爲替水準에 惡影響을 與케될것을 念慮하야 上半期爲替低落防止策으로서 七月三十一日限嚴止할 豫定下에 爲替管理를 强化한省令을 公布한것이다。

許=信用狀이라는것은 銀行이 發行하는 爲替手形에는 信用狀이 附屬되는데 이信用狀附手形은 他銀行에 가지고가면 조흔값으로 割引할수잇다。 또 爲替取出이라는것은 輸出에 때에 그代金을 受取에 必要한 爲替手續을 作하지안는 輸出이니 金대신物로써 資本逃避의 一形態가 되기도한다。

—【李健鎬】—

爲替管理省令은 貿易管理의 前哨

◇爲替低落防止의 一時的措置

國際收支의弱點暴露

【東京電話同盟】八日부터 施行된 爲替管理法에 基한 大藏省令은 本年上半期의 爲替低落防止라는 一時的措置인데 如斯한 措置는 最近의 國際爲替의 軟弱과 併하야 國際收支의弱點을 暴露할것으로서 爲替政策에 暗影을 投하고 從하야 爲替管理의 一段强化를 要求케할뿐아니라 延하야 貿易管理에까지 進展될것으로 보인다 卽 國際爲替는 二、二六事件에 依하야 顯著히 打擊을 受하얏스나 正金銀行의 必死的防戰에 依하야 一志二片台를 堅持하얏스나 이때문에 在外正貨는 相當히 減少되엇고 昨年의 貿易惡化와 其後의 經濟情勢는 最近에 爲替軟調로되어 出現하얏스므로 今後의 政府의 爲替政策은 各方面의 注目을 惹起하얏다 大藏省에서는 現在의 經濟情勢로보아 現在의 爲替水準은 어데까지 維持하자는 方針下에 進하고잇스므로 今回의 應急措置에 依하야 貿易情勢는 現狀대로 推移하드래도 來年上半期는 再次表面化할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明年度以降 軍需資材輸入、增大에 依한 軍需品의 增入、財政膨脹、稅收及在外外貨機關의 取得과 外國爲替銀行의 海外指圖에 依한 支拂等에 對하야 大藏大臣의 許可를 要하기로한것인데 實際의 運用에 當하야서는 愼重한 態度를 取하야 産業과 貿易上에 障害를 與치안토록 諒解하기를 希望한다

朝銀當局見解

政府는 爲替의 現勢에 對한 應急措置로서 輸入貨物代金의 決濟及 外國爲替銀行의 海外指圖에 依한 支拂制限에 關한 外國爲替管理法 改正에 基한 大藏省令을 八日公布되엇는데 朝鮮總督府에서도 이에 伴하야 公布實施할터인바 右에對하야 朝鮮銀行當局은 如左한 見解를가지고잇다

할이업도록 最善의 注意를할것인데 本省令은 本年七月三十一日限 임으로 臨時應急의措置임으로 貿易業者及銀行業者諸君은 本省令의 趣旨를 諒解하기를 希望한다

輸入貿易에大支障

事務의 奔忙을 招來케되어 그影響은 大하다 右法令에依하면 一月三萬圓以上의 取引이잇는者는 全部適用되는데 三萬圓以上의 取引을하는者는 大部分임으로 큰일이다 右와如히 非常한 制限下에서하게됨으로 自然許可의 包括申請이라는것이 行할것가트나 政府는 取締上簡單히 그러케할것 갓지안타

外地에도……適用을決定

十一日公布即日實施

【東京電話同盟】拓務省에서는 八日發令된 大藏省外國爲替管理法을 外地에 適用키로 決하고 朝鮮臺灣에서는 府令 樺太에서는 廳令으로서 來十一日公布即日實施되리라한다

貨物이 確實히 入手하면 代金決濟許可를 要치안헛던것이 今回改正法으로는 絕對로 必要케되엇다 二、銀行은 顧客의 爲替取引及信用狀取得에 適法인것을 確認함을 要한다 라는 點으로 外國取引中輸入은 結局例外업시 政府의 許可를 要케되어 一種의 輸入統制라고도 할수잇다 이結果는 商人은 賣買商議의 成立前에 許可書를 要케됨으로 商機를 逸할境遇도잇고 手續의 煩雜等에 依하야 輸入貿易에는 相當支障이되고 또 左右許可의 取次를하는 朝鮮銀行도 非常히

制限案에 依하야 物價高騰傾向에 依한 爲替低는 必然으로 보이므로 國際收支의 均衡을 保持하야는 見地에서 對外貿易에 對하야 全面的으로 統制를 加할것이아니라 爲替取引을 通한 貿易管理는 現實의 問題로서 近間考慮되기에 至할것으로 今回의 大藏省令은 그前哨가되는 意味에잇서 重要한 意義를가진것이라한다

◇馬場藏相談

【東京電話同盟】最近思惑輸入의 增加傾向은 相當히 顯著하고 이에 伴한 外國爲替銀行의 輸入爲替取組도 또激增을 示키에 至하얏는데 如斯한 狀態가 오래繼續되면 日本爲替의 將來에 자미업는 影響을 與할것가티생각됨으로 이에 臨時應急의 措置로서 當分間輸入貨物代金의 決濟에 關한 爲替取引을 許可事項으로하고 海外에서의 不當한 爲替思惑을 防止할 趣旨下에 外國爲替管理法에 基한 大藏省令을 制定하야 爲替의 安定을 圖하고 現在의 爲替水準의 保持를 期하고저 한것이다 本省令은 輸入貨物의 代金決濟에 關한 爲替取引信用狀取得의 許可는 原則으로 輸入貨物代金의 不圓

殖銀公共産業貸付 三億三千餘萬圓

農資만一億圓以上

朝鮮殖産銀行의 公共産業貸出金은 昨年十一月三十日現在로 四萬三千二百一口 總額三億三千百八十八萬八千八百六十七圓으로서 比前月幾高五百二十五口、二千六百九十四萬六千四百四十四圓의 激增을 示하얏는데 이를 用途別로 보면 農業의 二萬六千七百四十五口、一億七百九十八萬七千圓이 斷然 第一位를 占하얏고 그다음이 水利事業의 七千六百九十五萬九千圓이 次位로서 農事關係貸付에잇서서 殖銀이 얼마나 勢力을가지고잇슴을 보이고잇다 其內容은 如左하다。

用途別	口數	金額
金融組合聯合會貸付	[illegible]	[illegible]
行政	[illegible]	[illegible]
救化	[illegible]	[illegible]
衛生	[illegible]	[illegible]
交通運輸	[illegible]	[illegible]
水利事業	[illegible]	[illegible]
土地改良	[illegible]	[illegible]
農業	[illegible]	[illegible]
林業	[illegible]	[illegible]
畜産	[illegible]	[illegible]
工業	[illegible]	[illegible]
水産	[illegible]	[illegible]
電氣瓦斯	[illegible]	[illegible]
釀造	[illegible]	[illegible]
土木	[illegible]	[illegible]
鑛業	[illegible]	[illegible]
商業	[illegible]	[illegible]
土地家屋	[illegible]	[illegible]
負債整理	[illegible]	[illegible]
其他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토마토써진 昨年製造高

=二十三萬箱=

昭和十一年度朝鮮토마토써진 總製造高는 約二十三萬箱으로 前年度의 約十六萬箱에 比較하면 約七萬八千箱의 激增이오 朝鮮內로서는 未曾有의 實績을 擧하얏는데 이것을 製造各工場別로 보면 如左하다

(單位箱)

淸津林兼工場	五三、六四〇
漁大津水産輸出	七〇〇
西湖津平戶水産	三三、四七一
新昌丸安合名	八、九三九
新浦川南工場	七九、三五五
新南倉澤工場	九六一
六擇川南工場	一〇、五九二
前津宮本工場	五、五九〇
元山朝鮮缶詰	一三、六〇〇
長箭林兼工場	三〇、九二一
浦項浦濱工場	一四七
合計	二三七、九一六

鯛油不定量入札

朝鮮鯛油一月不定量入札은 八日午前總督府殖産局에서 行한結果 三圓八十一錢으로 朝窒에 落札되엇다 昨年一月의 落札價格보다 四十錢(一割)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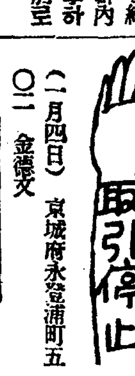
新米格付會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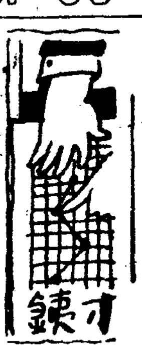
全朝鮮米取聯合會의 新米格付制定協議會는 八日午前十時부터 朝取本社樓上에서 開催하고

紅酒界消息

○東亞證券米豆株式會社長 趙俊鎬氏는 年末年始의 休會를 利用하야 東京、大阪等地를 視察中이든바 趙社長은 九日午後三時着歸任豫定

○米綿業視察團一行=【橫濱電話同盟】日米綿布協定締結의 重大任務를帶한 米國綿業視察團 十一名은 八日午前六時반노루로부터 橫濱入港의 郵船秩父丸으로 到着하얏다고





○(一月四日) 京城府永登浦町五〇二 金德文

○「新春金融은 樂觀禁物」이라고 堀商銀專務는말한다

○元來부터 대고樂觀은 못할일이더구나 朝鮮은 大凶作인點을 이저서는 안될일

○土木事業으로 勞賃撒布가 만흐리라하나 物價高에 伴치안는 勞賃으로서는 큰소리도못할일

朝鮮米格上

滿鐵幹部大擧南行

日本內地米取에서의 朝鮮米의 格上과 朝鮮米의 販路開拓宣傳을 目標로 朝鮮穀物協會聯合會에서는 齋藤幹事長以下高橋(菱ク)池(丸ナ)田中(菱ク)林(丸元)三隅(丸元)森田(丸木)七氏가 九日發大阪에가기로되엇고 橫山穀聯理事는 七日午後四時十五分先發하얏는데 應援키爲하야 總督府로부터 吉池技師도 大阪에가기로되엇다 總督府關係官出席으로 協議하얏는데 本年의 朝鮮米는 未曾有의 凶作으로 品質不良과 出廻遲延等으로 格付制定이 자못困難하엿으나 本年의 檢査方針은 依然不變이오 大體 昨年과 大差가업스리라한다

株式 商品高나 區區

今日의市勢(八日)

前場强調

今前場은 昨後場부터 再次 勝勢로 變한 重要株

보엿는데 商品市場은 昨日부터 다시 暴騰하기 始作함에따라 人絹 生糸等은 다시 氣勢를 回復하야 昨後場부터 鐘新、帝人、日産等은 再次 爆發하야 今前場에는 大阪短期의 鐘新은 二百九圓八十錢 帝人은 百二十四圓八十錢 日産은 九十八圓丁의 新高價를 보이게되엇다。 이러한 四圍情勢는 東新도 多少影響하야 少高商狀을 보엿스나 東新만은 單獨氣迷에 陷하야 高價不續으로 結局 寄付價를 下廻하야 大引되게되엇다 그러면 今後의 動向은 어떨가? 再起한 紡績에 追隨하야 東新이 再活躍할것인가? 또는 紡績人絹의 騰貴도 이것을 絕頂으로 下押하는데 따라 東新도 低落될것인가 하는것이 注目의 焦點인데 이에對해서는 一律的斷言은 내릴수는 업슬것이다 實이나 商品高도 어느限度가 잇슬것이오 天井不知의 勢로 騰貴하지는 못할것이며 昨日發表된 外國爲替管理法도 爲替低落의 防止、이어서는 物價暴騰을 抑制하려는 政策이라고 解釋되므로 商品이나 이를 反映한 諸株의 騰勢도 新高價를 보면 한번 後退를 보일것으로 보는편이 만흐므로 先高는 벌써 틀러도 高價를 보이면 一押하야 다시 한번 高價가될 順序가 아닐가생각된다 果如何?

雜株騰落區區

雜株는 고무株가 米國勞働爭議惡化에依한 고무價低落으로 不勢를 보엿든것이 解決의 曙光과 함께 고무株는 反撥하게되고 紡績株도 綿絲、人絹高로 反騰氣

▲鑛業株 産金株는 爲替管理로 金價가 抑制될것을 豫想으로 氣配低落하야 三菱新이 一圓五十錢低 六八、○ 朝鮮製錬 五十錢低 五、五 新望十錢低인 三〇、〇이며 其他 日石 七十錢低인 八五、三 北樺油 六十錢低인 四六、四 旭石油二十錢低 六八、二이엇다

▲電力株 大同電九十錢低 四四、六 同新四十錢低인 一七、六 東京瓦斯一圓低인 六八、〇 同新二圓六十錢低인 一六、四이엇다

▲其他 石川造船一圓五十錢인 九〇、五 同新 一圓低인 七七、〇이나 大阪商船은 四十錢高인 六〇、一、同新四十錢高인 一九一二이며 網管은 續高로 新株一圓五十錢高인 五二、八이엇고 東滿洲 七十錢高인 一七、九 팔푸工業八十錢高一六、九이며 大同産業은 拂込徵收說로 六圓七十錢으로부터 四圓七十錢의 氣配로 暴落이엇다

▲고무株 新嘉坡現物이 四十仙을 突破하게됨에따라 日産고무는 一圓三十錢高로 五十七圓八十錢을 보이고다시 五五九五〇을 보인 八圓五十錢에 小弱하엿다 南亞

▲紡績株 日本紡이 二圓六十錢高인 一二、八 岸和田紡이 一圓高인 六七、〇이엇는데 日出紡은 過買反動으로 九十錢低 五八、六 同新二十錢低인 一八、〇이엇다 日華紡은 配當復活說과함께 一圓三十錢

▲肥料株 肥料株는 農村購買力의 增大豫想과 硫安價의 强硬으로 漸强하야 電化六十錢低인 五六、七 同新五十錢低로 五〇、八 昭和肥六十錢低인 七七、二 合同油脂一圓低인 八〇、六 新一圓五十錢低인 五九、七 사工業은 二圓低인 一〇九、〇 新四十錢低로 六一、九이엇다

實物前場取引

▲大同産業六〇 五六〇 五五〇 ▲日本鋼管二新五〇 五〇 ▲人造羊毛三〇 ▲朝鮮製錬六二〇〇 ▲富士木材六〇 ▲第二떼젤三五〇〇 ▲에라파이新三五 ▲帝國火藥一四〇 ▲大日本新酒 五〇〇 ▲日本고무六〇(取引高三百枚)

國債 過買反動 軟調

▲東京【東京電話同盟】春高期待

貯銀預金積金在高

十二月末日의 朝鮮貯蓄銀行의 預金積金現在高는 如左하다 (單位千圓△減)

種別	十二月末現在	對前月末增減
普通貯金	[illegible]	[illegible]
特別貯金	[illegible]	[illegible]
据置貯金	[illegible]	[illegible]
殖産債券	[illegible]	[illegible]
定期預金	[illegible]	[illegible]
別段預金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株……外國爲替管理法이 發表되니 一面으로 好感、他面으로 悲觀 ▲爲替安定으로 物價騰貴의 度를 抑壓하는것은 조흐나 産金株가튼 鑛業株는 前途多少悲觀 ▲그러나 綿絲는 二百八十圓臺로(當限) 棉花先限은 七十七圓臺로 生絲는 當限九百十圓臺로 모다 新高價를 示現 ▲이에따라 紡績、人絹株 再次奔騰하니 이것은 어느限까지 昂騰? ▲그러나 東新만은 頭重伸惱로 不動不進하야

米……昨日은 二十餘丁反落 今日은 三十餘丁反撥! 大體市勢의 步調는 强硬▲昨日의 高物價調節은 一時的賣氣要衝動하엿고 今期의 實收減收說은 買方의 唯一한 强材▲果然日本內地의 實收減이 百萬石 朝鮮의 減收가 百萬石이라하면 市勢의 又復一高를 可期 ▲正米의 市勢는 昨年後最高인 二十九圓三十錢에 比하야 二十錢程度의 反落을 告하엿스나 此에는 底堅味를 添하는 光景▲아즉도 大勢는 寸退尺進의 形勢로 어느時期까지를 모양이니 擇日買가 得策?

實收減少說로 買氣又復潑剌

昭和十一年産米의 第二回豫想은 日本內地는 六千六百三十八萬六千九百八十石 朝鮮은 二千十九萬九千九十二石으로 日本內地는 第一回豫想보다 百四十五萬九千七百石의 減收를 示하고 朝鮮은 第一回보다 二十五萬六千八百十九石의 增收를 告하엿는바 此는 昨年十月二十日現在調査로서 其後 收入不足의 說이 不無하엿스며 더욱이 朝鮮米作은 風水害의 關係로 米粒이 充實치못하야 正租一石을 가지고 玄精白하려면 例年의 五割程度에 比하야 平均十五斤의 不足을 生

後場保合

後場은 二十九圓四十一錢인 二丁高로 始하야 四圓三十八錢으로 結局三十九錢인 五番同價로 保合止하엿다

期米 實收減說 反撥

前場反高

昨後場阪地三十九錢에 十一錢止와 共히 二十九圓二十九錢에 入하야 阪地初付三十一圓十錢止로 當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三十一錢으로 四丁高를 告하고 二十五錢의 亦四丁高로 後場阪地二十九錢으로 三十九錢까지 反發하며 局阪止十六錢의 反落을 伴하야 三十九錢의 五番同價로 保合止하얏다

▲佛貨 一九六八五
▲大阪 ▲甲五分利一〇〇三五 ▲二回四分一〇一四〇 ▲一回四分一〇一六〇 ▲佛貨一九七八〇 ▲米貨六分半一二五三五 ▲滿洲公債一〇〇三〇

朝取期米取組內容

(單位百石)

	賣方	買方
當	[illegible]	[illegible]
中	[illegible]	[illegible]
先	[illegible]	[illegible]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受米書거의 整理하야 去就如何가 注目되고잇든問題의 田中眞은 新春初 一圓三〇錢以上의 賣指價를 가지고잇슴으로 그指價는 取消하더 손모양이다

農家依然强硬

今後가注目處

最近米界의 事情을 綜合하여보면 大體農家는 客年十一月以來 大收穫方針을 固執하고잇슴으로 米出盛期를 經하엿슴에도 不拘하고 集散市場은 推積을 보지못하고 宛然減穀期의 狀態를 呈하여왓섯다 越年後인 今日에 도이러타할만한 出廻가 업시 米市場의 閑散을 목할을 보면 農家의 腦髓가 그얼마나 頑强한 憤을 알수잇다 아프로 春期에 臨迫함을 따라 그態度가 一變할지는 몰으나 朝鮮은 凶作인데다가 米粒의 不良으로 賣給上의 成績이 良好치못하야 影響을 및이는바 적지 안을것으로 보이니 目下의 모양이다 때문에 어느 時期까지 强硬的 態度가 依然强固할지 果然 今後의 注目할 點이다 하는 實로 막대한 第二回豫想의 數字보다 減收를 宣傳하는 說이 濃厚하여진다 果然 그얼마나 減收될지는 몰으나 多少減收될것만은 事實이므로 高物價相의 高騰과 依然 軟味를 添하는 各地米價는 上記의 減收說에 買氣가 潑剌하야 今朝 一、二十丁의 反撥을 示함에 至하엿다 今後果如何?

今日財界八日

◆米	
仁川期米 先限	二九四〇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三等米	[illegible]
京城正租	[illegible]
◆株	
朝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日産	[illegible]
◆商品	
大阪綿絲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正米 保合 實行不振

京城不變 探索不合으로 實物이 全혀업서 市況은 沈靜勢에 保合이엇다 三等二九〇 四等二八〇 一等白米二二、〇〇

一圓二十五錢以上으로 五千石의 指值實物을 注入하고잇다한다

△賣方 地場鮮穀 △買方 地場醸造

仁川閑況 正租高로 産地實物이 거의업서 實買는 格閑이적다 實行不振으로 定期高도 無影響으로 氣配不變이다 三等二九、二〇 四等二八、八〇 一等白米二二、〇〇

釜山不變 定期高나 日本內地實行不振에 市勢는 昨日價와 大體不變이엇다 三等二九、〇〇 四等二八、七〇 一等白米二二、三四

大邱少堅 氣構하야 期米高에 探索側의 買望과 期米人氣濃厚로 實買는 不活潑하다 三等二八、四〇 四等二八、七〇 一等白米二二、〇

群山保合 定期强調를 보나 日本內地不買로 市況은 保合이엇다、大農側이 賣物을 내지안키때문에 市場出廻는 極少하다 三等二八、九〇 四等二八、七〇

木浦少高 日本內地入注는 全혀업스나 思惑買가 多少잇고 定期高로 四十錢高 氣配가 되엇다 正租의 割高持續에서 奧地出廻는 적다 三等二九、四〇 四等二九、一〇 一等白米二二、〇〇

株式

◆朝取短期◆ ◆東京短期◆ ◆大阪短期◆ ◆東京現株◆ ◆東京短期取組◆ ◆朝取短期賣買高◆ ◆定期主要株取組◆ ◆大阪短期賣組◆ ◆大阪長期◆ ◆實定代引日步◆

期米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大邱期米◆ ◆木浦期米◆ ◆群山期米◆ ◆釜山期米◆ ◆大阪期米◆ ◆大阪期米取組◆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海外經濟 七日

銀行券 七日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手形交換·金利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銀價

◆金買入價◆ ◆東京市中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正米

◆京城正米◆ ◆仁川正米◆

正租

◆大阪正米標準價◆ ◆大阪市中在米高◆

雜穀

◆京城雜穀◆ ◆仁川雜穀◆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本絹交織人絹

◆京城絹布◆

鰯油粕·麥粉

◆鰯油冲價◆ ◆鰯粕冲價◆ ◆日本麥粉市勢◆

滿洲商況

◆大連特産市勢◆

綿糸

◆大阪綿糸◆

棉花

◆大阪棉花◆

人絹

◆各地人絹◆ ◆大阪人絹現物◆

生糸

◆橫濱生糸◆

砂糖

◆大阪砂糖◆ ◆東京砂糖◆

○桑野取引所
仁川米豆取引所取引員
電話長六三九番